

제4편

부록

- 826 1. 2023·2024년도 군정일지
- 832 2. 역대 군수(구청장) 명단
- 834 3. 울주군의회 의원명단
- 835 4. 역대 부군수(부구청장) 명단
- 836 5. 간부공무원 명단
- 839 6. 행정기구표
- 841 7. 읍·면 자연마을현황
- 842 8.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 도시
- 843 9. 언론보도

1. 2023년도 군정일지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1.	2.	사무식	1층 알프스홀	총 무 과
	5.	신년 인사회	더엠컨벤션	총 무 과
	6	2023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발대식	1층 문수홀	일자리정책과
	13	저소득층 「설맞이 차례상 장보기」 물품 전달식	웅기종기 시장	복지정책과
	17	2023년 울주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1층 문수홀	총무과
	27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워크숍	더엠컨벤션	주민소통실
2.	5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온산읍, 웅촌면 일원	온산읍, 웅촌면
	9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활성화 워크숍	1층 문수홀	기획예산실
	23~25	태화강 어린연어 방류체험	태화강생태관 일원	축수산과
3.	3~16	행복배달소통 개최	읍·면	주민소통실
	6	고려아연(주) 성금 전달식	7층 군수실	복지정책과
	16	국공립 어음어린이집 개원식	어린이집 앞	여성가족과
	23	해뜨미 바로-콜센터 개소	4층 회의실	주민소통실
	31	제4회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 개막식	작천정	산림공원과
4.	7	2023년도 울주군 이장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배내골영남알프스	주민소통실
	8	남창 4.8만세운동 재현 행사	남창시장 일원	복지정책과
	8~9	영남알프스 힐링음악회	북합웰컴센터 야외광장	관광과
	20	다같이 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울주군장애인복지관	노인장애인과
	21~23	그린차박 페스티벌 in 울산	자수정 동굴나라 일원	관광과
	22	친환경 울주 나눔장터	덕신소공원	환경자원과
	22~23	제12회 우시산국 축제	웅촌운동장, 회야강	문화체육과
	27~30	울주 클라이밍데이	북합웰컴센터 야외광장	관광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5.	3-17	주민과의 대화	읍·면	주민소통실
	5	제101회 어린이날 큰잔치	중부, 서부, 남부 일원	여성가족과
	5-7	2023 '웰컴 투 웅기마을' 울산옹기축제	웅기마을 일원	관광과
	7-8	제15회 남창옹기종기시장 한마음대축제	서부 노인복지관	지역경제과
	9-18	2023년 독거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읍·면	복지정책과
	13	울주군 가족센터 「가족사랑운동회」	울산과학기술원	여성가족과
	19-21	제12회 울산반구대 산골영화제	작천정	문화체육과
	24	온양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식	온양읍	여성가족과
6.	2	무공수훈자회 선망(先亡) 회원 추모제	화랑체육공원	복지정책과
	7-8	직원 소통 캠프 추진	하동 일원	총무과
	14	울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울주사랑 대운산 플로깅	대운산	여성가족과
	29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영남알프스	주민소통실
	30	울주 해뜨미 씨름단 숙소 개소식 개최	씨름단 숙소	문화체육과
7.	1	진하해수욕장 개장식	진하해수욕장	관광과
	5	제8회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장기 한궁대회	울주군민체육관	노인장애인과
	14	태화강 어린 황어 방류	범서읍 선바위교	축수산과
	15	제3회 울주군 읍·면체육회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삼동면민체육관	교육체육과
	24	2023년 울산옹기박물관 특별기획전 개막식	옹기박물관	관광과
	28-30	울주 진하해변축제 개최	진하해수욕장	관광과
8.		2023 울산서머페스티벌	진하해수욕장	문화예술과
	12	제11회 간절곶 해오름 가요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12	해뜨미 씨름단과 함께하는 울주장사를 찾아라!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
	19	제12회 선바위 하하페스티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21-24	2023년 을지연습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9.	3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캠프	성동초등학교	여성가족과
	6	365 소통 군수실 「울주 소상공인과의 대화」개최	1층 문수홀	주민소통실
	7	제1회 대한노인회울주군지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웅촌운동장	노인장애인과
	9	제11회 울주복지박람회 개최	온양체육공원	복지정책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9.	13	「2023년 울주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1층 문수홀	일자리지원과
	17	「울주 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서울주문화센터	문화예술과
	20	2023년도 주민자치위원 화합의 한마당 대회 개최	온산문화체육센터	주민소통실
	23	언양향교에 울려 퍼지는 가을밤 행복콘서트 예향	언양향교	문화예술과
10.	3-28	제27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웅촌운동장	노인장애인과
	5	2023년 주민참여예산 위원 선진지 견학	부산 영도구	기획예산실
	5	제7회 축산인 한마음대회	봉계 다목적 행사장	축수산과
	5-17	2023년 울주군 마을 반장과의 대화	읍·면	주민소통실
	6-9	2023 울주 봉계 한우불고기축제	봉계 다목적 행사장	축수산과
	10	공직자 청렴콘서트	1층 알프스홀	총무과
	20-29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북합웰컴센터	문화예술과
	21-22	제2회 영남알프스 완등인의 날 행사	북합웰컴센터	관광과
	3	2023년 울주군 국공립 보육교직원 보육인의 밤 행사	더엠컨벤션	여성가족과
	4	제2회 울주 농산물 직거래 야시장	범서생활체육공원	주민소통실
11.	4	『2023 울주음식문화축제』 행사 개최	온양체육공원	위생과
	5	제1회 울주군소상공인의 날 행사	범서생활체육공원	지역경제과
	9	제24회 울주군 이장 한마음 전진대회	삼동면민운동장	주민소통실
	14	제16회 울주군 장애인 희망누리축제	삼동면민운동장	노인장애인과
	23	울주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울주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과
	3	2023년 울주군 자원봉사 대축제	1층 알프스홀	복지정책과
	5	울주군 노사민정 워크숍 개최	더엠컨벤션	일자리지원과
12.	11	안전보안관 안전예방 워크숍 개최	1층 문수홀	안전총괄과
	16	어린이 재난안전뮤지컬 연말 특별공연	1층 알프스홀	안전총괄과
	29	2023년 종무식 개최	1층 알프스홀	총무과
	31~'24.1.1	2024 간절곶 해맞이 행사	간절곶 공원	문화재단

1. 2024년도 군정일지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1.	2	범서읍 굴화민원실 개소식	울산원예하나로마트	회계정보과
	5	2024년도 신년인사회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총무과
	15~22	신년맞이 주민과의 대화	읍·면	주민소통실
	23	저소득층 「설맞이 차례상 장보기」 물품 전달식	옹기종기 전통시장	복지정책과
2.	3	청량천변 청보리 밭기 체험 행사	청량천변	청량읍
	5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식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과
	6	김동규와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울주문화예술회관	문화재단
	22	울산옹기축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관광과
	24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읍·면	-
3.	4	울주군 1호 달빛어린이병원 현판식	햇살아동병원	보건소
	7	2024년 공간다듬이 업무협약식	7층 은행나무홀	토지정보과
	14	2024년 언양향교 춘계 석전제	언양향교	문화예술과
	21~23	2024년 경남관광박람회 울주홍보관 운영	경남 창원컨벤션센터	관광과
	23	제5회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 개막식	작천정	산림공원과
4.	6	충렬공 박제상 향례	치산서원	문화예술과
	17~19	장애인의 날 기념 「VR 장애 체험」 홍보관 운영	1층 문수홀	보건과
		제33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온양체육공원	총무과
		반구서원 삼현제	언양읍 반구서원	문화예술과
		「서울에서 울주를 만나다」 팝업홍보관 운영	서울 북촌 한옥마을	관광과
		2024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식	울산종합운동장	교육체육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울림 한마당’ 행사	울주군민체육관	복지정책과
5.	3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안전총괄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5.	4	2024 울산옹기축제 개막식	외고산 옹기마을	관광과
	5	제102회 울주 어린이날 큰잔치 기념식	범서생활체육공원	여성가족과
	7	제25회 적십자봉사회 어르신 사랑의 효잔치	남구 울산문수컨벤션	노인장애인과
	13	제16회 남창옹기종기시장 한마음축제 기념식	남창옹기종기시장	지역경제과
	17	2024년 울주군수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식	군청 잔디광장	교육체육과
	18	서생 해안 명소 트레킹 행사	서생면 진하리, 온산읍 강양항	관광과
	25	울산 반구대 산골영화제 개막식	작천정	문화예술과
	7.	2024 울주의 봄 피크닉 콘서트 〈유월의 밤〉	작천정	문화재단
	10	울주 단오 민속 한마당	옹기문화공원	문화예술과
	28	2024년 진하해수욕장 개장식	진하해수욕장	관광과
	29	2024 울주 인조이	범서생활체육공원	문화예술과
	7.	군민행복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1층 문수홀	기획예산실
	5	제9회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장기 한궁대회	울주군민체육관	노인장애인과
	6	읍면체육회 한마음단합대회	삼동면민체육관	교육체육과
	9	울주장애인근로사업장 개장식	울주장애인근로사업장	노인장애인과
	26	2024년 울주진하해변축제 개막식	진하해수욕장	관광과
	8.	2024 울주해양레포츠대축전 개막식	진하해수욕장	교육체육과
	6	사랑의 우리 지역쌀 나눔 전달식	군수실	복지정책과
	10	2024년 울산서머페스티벌	진하해수욕장	문화도서관과
	22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기자회견	울산광역시청 시민홀	문화도서관과
	24	간절곶 해오름 가요제	간절곶	문화도서관과
	27	울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	울주군 가족센터	여성가족과
	9.	기업 투자유지보조금 투자 협약식 및 전달	8층 비둘기홀	일자리지원과
	3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1층 알프스홀	여성가족과
	4	울주군 기관단체장협의회	7층 이화홀	총무과
	21	제12회 울주복지박람회	구영공원	복지정책과
	23	국공립 덕하1차 어린이집 개소식	어린이집	여성가족과
	26	온산읍 행정복지타운 개관식	온산읍 행정복지타운	회계과

일 자		주 요 행 사 및 시 책		
월	일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 서
	27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식	북합웰컴센터	문화도서관과
10.	3	울주 오디세이	신불산 간월재	문화도서관과
	5	누나별 북콘서트	오영수문학관	문화도서관과
	12	울주 피크닉콘서트 〈가을 한 장〉	청량운동장	문화도서관과
	18	울산 배 축제 행사 개막식	범서생활체육공원	농업정책과
	19	울주종합체육센터 개관식	울주종합체육센터	교육체육과
	26	전국만화 페스티벌	울산들꽃학습원	문화도서관과
	26	2024년 울주 청소년예술제	범서생활체육공원	여성가족과
11.	6	언양향교 원로 유림 기로연 행사	언양향교	문화도서관과
	7	울주군 이장협의회 한마음 전진대회	온양체육공원	총무과
	7	청량 청량천 친수공간 조성공사 준공식	청량천 덕하리 일원	건설과
	9	2024 울주음식문화축제	범서생활체육공원	자원위생과
	13	2024년 숲가꾸기 행사	언양읍 송대리 일원	산림휴양과
	21	제15회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1층 알프스홀, 문수홀	총무과
	27	2024년 울주군 아동권리영화제	1층 문수홀	여성가족과
	30	제1회 영남알프스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식	울주종합체육센터	교육체육과
12.	1	트리문화축제 점등식	KTX 울산역 광장	문화도서관과
	3	웅촌문화복지센터 기획전시「웅촌爰스밈」 개막식	1층 문수홀	문화도서관과
	3	2024년 울주군 자원봉사대축제 기념식	더엠컨벤션	복지정책과
	10	울주경관실록 사진전	군청 1층 로비	신성장개발과
	17	2024년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1층 문수홀	지역경제과
	27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개설공사 개통식	공사현장 일원	도로과
	31	2024년 종무식	1층 알프스홀	총무과

2. 역대 군수(구청장) 명단

대 순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1	최 동 용	1945. 10. 24.	1946. 11. 17.	1년
2	유 태 경	1946. 11. 18.	1947. 3. 31.	4월
3	오 주 석	1947. 4. 1.	1949. 6. 20.	2년 2월
4	이 박 규	1949. 6. 21.	1950. 5. 5.	10월
5	박 재 현	1950. 5. 6.	1950. 7. 22.	2월
6	강 병 수	1950. 7. 23.	1951. 8. 31.	1년 1월
7	이 희 득	1951. 10. 5.	1953. 1. 5.	1년 3월
8	김 인 제	1953. 1. 6.	1953. 7. 6.	6월
9	이 백 순	1953. 7. 7.	1954. 12. 1.	1년 4월
10	김 극 수	1954. 12. 2.	1956. 11. 5.	1년 11월
11	장 병 구	1956. 11. 6.	1957. 4. 28.	6월
12	서 석 지	1957. 5. 30.	1958. 3. 14.	9월
13	조 창 제	1958. 3. 15.	1960. 5. 24.	2년 2월
14	윤 덕 병	1960. 5. 25.	1960. 9. 13.	1년 3월
15	정 명 철	1960. 11. 29.	1961. 6. 17.	7월
16	김 철 년	1961. 6. 18.	1962. 11. 11.	1년 4월
17	김 현 규	1962. 11. 12.	1964. 1. 31.	1년 2월
18	김 종 구	1964. 2. 1.	1965. 3. 31.	1년 2월
19	이 진 섭	1965. 4. 1.	1966. 9. 30.	1년 6월
20	이 태 수	1966. 10. 1.	1968. 4. 28.	1년 7월
21	한 형 구	1968. 5. 1.	1971. 8. 20.	3년 3월
22	박 용 범	1971. 8. 21.	1973. 6. 30.	1년 10월
23	한 영 규	1973. 7. 1.	1974. 4. 22.	9월
24	한 형 구	1974. 4. 23.	1974. 12. 31.	8월
25	황 길 태	1975. 1. 1.	1976. 3. 30.	1년 3월

대 순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26	김 영 환	1976. 4. 1.	1978. 8. 1.	2년 4월
27	조 상 래	1978. 8. 2.	1979. 10. 15.	1년 2월
28	조 규 섭	1979. 10. 16.	1980. 3. 16.	5월
29	황 대 영	1980. 3. 17.	1981. 12. 22.	1년 9월
30	박 필 용	1981. 12. 23.	1983. 4. 13.	1년 3월
31	손 태 병	1983. 4. 14.	1985. 3. 10.	1년 11월
32	김 종 학	1985. 3. 11.	1986. 2. 27.	11월
33	박 지 근	1986. 3. 8.	1988. 6. 10.	2년 3월
34	이 승 관	1988. 6. 11.	1989. 12. 26.	1년 6월
35	김 명 규	1989. 12. 27.	1992. 4. 22.	1년 4월
36	김 진 백	1992. 4. 23.	1993. 3. 28.	11월
37	황 기 준	1993. 3. 29.	1993. 12. 20.	9월
38	김 수 영	1994. 1. 3.	1994. 12. 31.	1년

■ 울주구청장 및 군수

대 순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1	배 경 석	1995. 1. 1.	1996. 3. 1.	1년 2월
2	손 달 인	1996. 3. 2.	1997. 6. 30.	1년 4월
군수직무대행	허 선 호	1997. 7. 15.	1998. 6. 30.	1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선군수

대 순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초대민선군수	박 진 구	1998. 7. 1.	2002. 6. 30.	4년
민선2대 군수	엄 창 섭	2002. 7. 1.	2006. 6. 30.	4년
민선3대 군수	엄 창 섭	2006. 7. 1.	2008. 9. 25.	2년 3월
민선4대 군수	신 장 열	2008. 10. 30.	2010. 6. 30.	1년 8월
민선5대 군수	신 장 열	2010. 7. 1.	2014. 6. 30.	4년
민선6대 군수	신 장 열	2014. 7. 1.	2018. 6. 30.	4년
민선7대 군수	이 선 호	2018. 7. 1.	2022. 6. 30.	4년
민선8대 군수	이 순 걸	2022. 7. 1.	현재	-

3. 울주군의회 의원명단 (2024 기준)

의원		선거구
구분	성명	
의장	최길영	가 선거구
부의장	정우식	나 선거구
의회운영위원장	김시욱	다 선거구
행정복지위원장	노미경	비례대표
경제건설위원장	이상걸	가 선거구
의원	김영철	나 선거구
의원	김상용	가 선거구
의원	한성환	가 선거구
의원	박기홍	다 선거구
의원	이상우	나 선거구

※ 가 선거구 : 온산, 온양, 청량, 서생, 웅촌 나 선거구 : 언양, 삼남, 두동, 두서, 상북, 삼동 다 선거구 : 범서

※ 가 선거구 : 온산, 온양, 서생, 웅촌 나 선거구 : 범서, 청량 다 선거구 : 언양, 삼남, 상북, 두동, 두서, 삼동

4. 역대 부군수(부구청장) 명단 (2024 기준)

대 수	성 명	부임년월일	전임년월일	재직기간	비 고
1	허 완	1975. 1. 10.	1976. 3. 31.	2년 3월	
2	김형기	1976. 4. 1.	1978. 5. 19.	2년 2월	
3	정임준	1978. 5. 20.	1981. 9. 30.	3년 4월	
4	최상향	1981. 10. 1.	1982. 11. 3.	1년 1월	
5	김은석	1982. 11. 4.	1987. 9. 22.	4년10월	
6	김태일	1987. 9. 23.	1991. 9. 30.	4년	
7	윤종진	1991. 10. 1.	1993. 6. 18.	1년 9월	
8	장병한	1993. 6. 19.	1994. 9. 30.	1년 3월	
9	서진철	1994. 10. 17.	1994. 12. 31.	2월	
10	한용규	1995. 1. 1.	1995. 1. 24.	1월	부구청장
11	김장욱	1995. 1. 25.	1995. 7. 24.	6월	"
12	이수길	1995. 8. 4.	1997. 1. 28.	1년 6월	"
13	이철호	1997. 1. 29.	1997. 7. 14.	6월	"
14	허선호	1997. 7. 15.	1998. 9. 25.	1년 2월	군수직무대행 '97. 7. 15. ~ '98. 6. 30.
15	유병래	1998. 9. 26.	2000. 1. 23.	1년 4월	
16	심부용	2000. 1. 24.	2001. 1. 8.	1년	
17	최문규	2001. 1. 9.	2002. 7. 30.	1년 7월	
18	유병래	2002. 8. 1.	2003. 7. 7.	11월	
19	허종생	2003. 7. 8.	2005. 1. 26.	1년 7월	
20	이성섭	2005. 1. 27.	2005. 12. 31.	1년	
21	이선범	2006. 1. 12.	2007. 6. 29.	1년 6월	
22	신장열	2007. 7. 20.	2008. 9. 30.	1년 2월	
23	박정식	2008. 10. 2.	2009. 12. 31.	1년 2월	
24	이효재	2010. 1. 8.	2011. 1. 31.	1년	
25	허만영	2011. 2. 2.	2012. 7. 2.	1년 5월	
26	전병수	2012. 7. 3.	2013. 6. 30.	1년	
27	한진규	2013. 7. 3.	2015. 12. 31.	1년6월	
28	장한연	2016. 1. 1.	2016. 12. 31.	1년	
29	이경걸	2017. 1. 1.	2017. 12. 31.	1년	
30	조한희	2018. 1. 1.	2019. 1. 3.	1년	
31	김지태	2019. 1. 4.	2019. 12. 31.	1년	
32	서석광	2020. 1. 1.	2021. 6. 30.	1년6월	
33	강윤구	2021. 7. 1.	2022. 12. 31.	1년6월	
34	김석명	2023. 1. 1.	2024. 12. 31.	1년11월	

5. 간부공무원 명단(2024 기준)

가. 본 청

직 위		직 급	성 명	보직일자
군 수		정 무 직	이 순 겐	2022. 7. 1.
부 군 수		지방부이사관	김석명	2023. 01. 01.
행정지원국장		지방서기관	박진영	2022. 07. 21.
문화관광국장		지방서기관	박경례	2024. 07. 01.
복지환경국장		지방서기관	김효준	2022. 07. 21.
경제산업국장		지방서기관	박득선	2024. 07. 01.
안전주택국장		지방서기관	김미혜	2024. 01. 01.
도시건설국장		지방기술서기관	김현철	2023. 07. 01.
기획예산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진병석	2024. 07. 01.
주민소통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안지연	2022. 07. 21.
행정 지 원 국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백진백	2024. 07. 01.
	교육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문지영	2024. 07. 01.
	회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자애	2024. 07. 01.
	세무1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준식	2024. 07. 01.
	세무2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운하	2024. 01. 01.
문 화 관 광 국	문화도서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현영	2024. 07. 01.
	관광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김연희	2021. 01. 01.
	산림휴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근석	2024. 01. 01.
	홍보미디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민규	2024. 07. 01.
복 지 교 육 국	복지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주보령	2024. 07. 01.
	노인장애인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제순경	2024. 01. 01.
	여성가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의	2024. 01. 01.
	환경기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은정	2024. 01. 01.
	자원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윤순옥	2024. 07. 01.

	직 위	직 급	성 명	보직일자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미희	2024. 01. 01.
	일자리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인숙	2023. 07. 01.
	에너지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형석	2022. 07. 21.
	농업정책과장	지방농업사무관	박계근	2023. 07. 01.
	축수산과장장	지방농업사무관	신용석	2024. 07. 01.
안전환경국	안전총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홍경숙	2023. 07. 01.
	교통정책과장	지방환경사무관	이상민	2023. 01. 01.
	민원지적과장	지방녹지사무관	배재열	2024. 01. 01.
	건축허가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승용	2023. 07. 01.
	주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전순이	2024. 01. 01.
도시건설국	도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이동현	2024. 07. 20.
	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	탁영식	2023. 01. 01.
	도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김형규	2023. 07. 01.
	시설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창걸	2023. 01. 01.
	신성장개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표용규	2023. 01. 01.

나. 보건소

직 위	직 급	성 명	보직일자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유점숙	2024. 07. 01.
보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장래전	2024. 07. 01.
건강관리과장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임명순	2024. 07. 01.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지방보건사무관	유문생	2023.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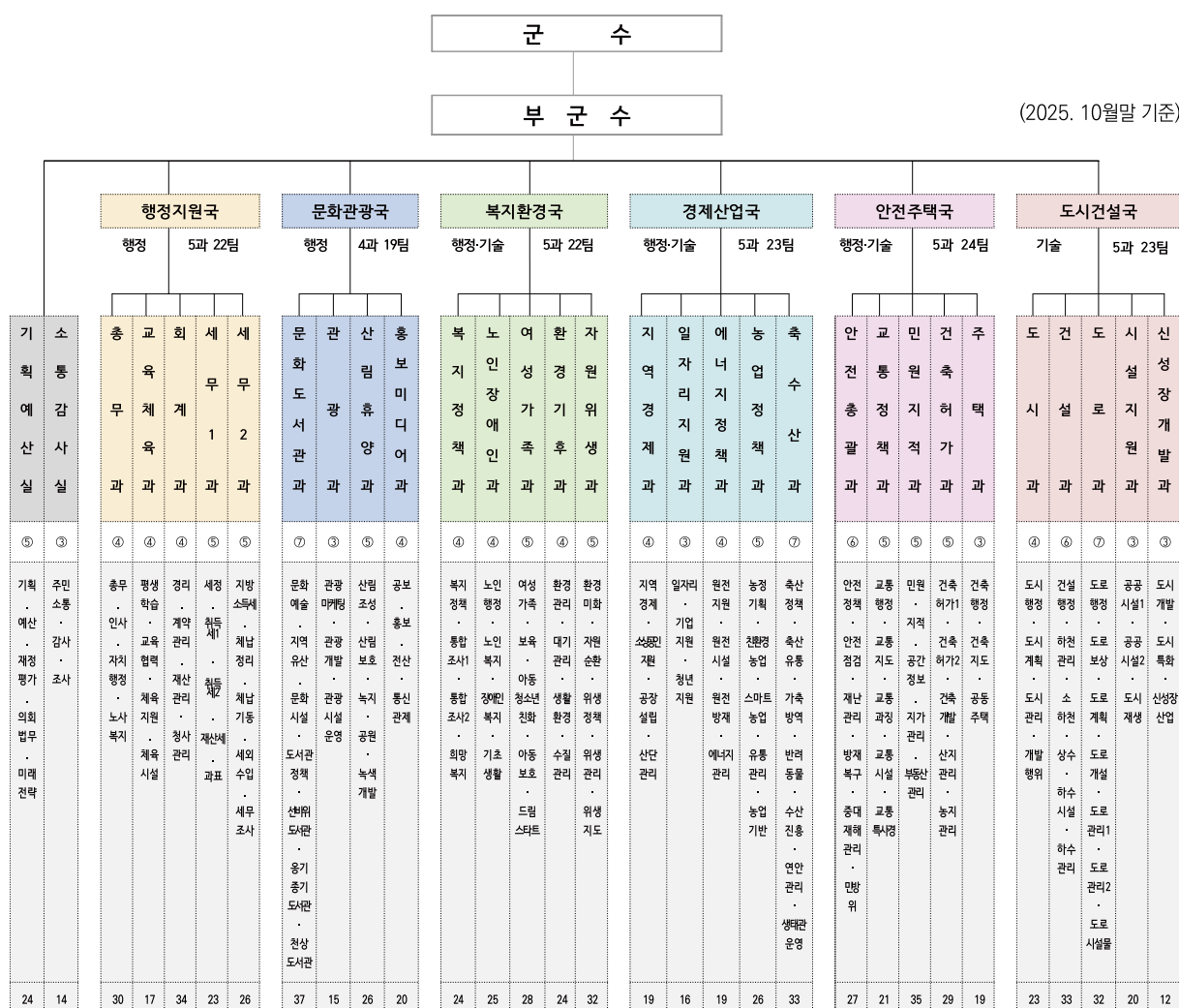
다. 읍면

직 위	직 급	성 명	보직일자
범 서 읍 장	지방서기관	박 공 열	2023. 07. 01.
범서읍 민원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은 주	2024. 07. 01.
범서읍 생활복지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강 성 옥	2024. 01. 01.
온 산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준 호	2024. 07. 01.
언 양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임 명 희	2024. 07. 01.
온 양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서 천 천	2024. 07. 01.
청 량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순 천	2023. 07. 01.
삼 남 읍 장	지방행정사무관	배 인 기	2024. 07. 01.
서 생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혁 관	2024. 01. 01.
웅 촌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은 경	2023. 07. 01.
두 동 면 장	지방농업사무관	최 명 선	2024. 07. 01.
두 서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은 경	2024. 01. 01.
상 북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설 석 환	2024. 01. 01.
삼 동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두 진	2024. 01. 01.

라. 의회

직 위	직 급	성 명	보직일자
의회사무국장	지방서기관	최 병 수	2024 1. 1.
전 문 위 원	지방행정사무관	김 미 옥	2022. 1. 1.
전 문 위 원	지방행정사무관	김 희 숙	2022. 1. 1.
전 문 위 원	지방행정주사	유 원 종	2024.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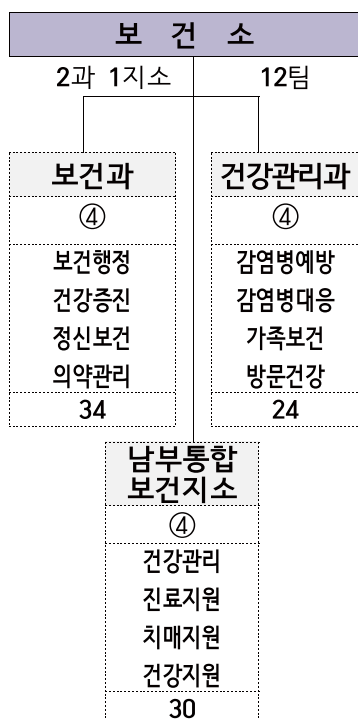
6국 31실과(141팀)
의회(1국3팀3전문)
보건소(2과1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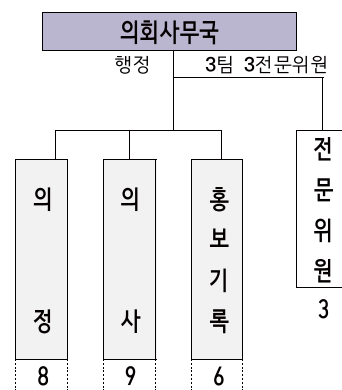
■ 읍·면 : 65팀장 / 255명

읍면	계	범서	온산	언양	온양	청량	삼남	서생	웅촌	두동	두서	상북	삼동
팀장	65	9	6	6	6	6	6	5	5	4	4	5	3
정원	255	43	23	26	25	21	23	19	16	14	14	18	13

■ 직속기관



■ 의회사무국



7. 읍·면 자연마을 현황(총무과)

24.12.31.기준

읍면별	면적 (km ²)	가 구	인 구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수)	법 정 리 명
6읍 6면	758.37	101,935	218,806	118 (384)	2,113	
범서읍	77.07	25,344	66,861	10 (69)	624	서사, 척과, 두산, 구영, 중리 망성, 사연, 입암, 천상, 굴화
온산읍	40.69	10,856	19,086	13 (38)	138	당월, 우봉, 강양, 삼평, 원산 대정, 이진, 화산, 덕신, 산암, 방도, 처용, 학남
연양읍	68.72	13,273	29,352	15 (44)	309	송대, 서부, 동부, 남부, 어음, 반송, 구수, 반천, 반연, 대곡, 반곡, 평리, 다개, 태기, 직동
온양읍	64.28	12,609	28,023	10 (43)	276	남창, 동상, 망양, 고산, 삼광, 내광, 외광, 운화, 대안, 발리
청량읍	59.95	9,410	20,853	9 (36)	230	상남, 개곡, 덕하, 문죽, 율리, 삼정, 중리, 동천, 용암
삼남읍	31.01	11,807	22,066	5 (35)	170	교동, 신화, 상천, 가천, 방기
서생면	36.88	4,738	8,464	10 (22)	77	신암, 명산, 화산, 위양, 용리, 서생, 화정, 진하, 대송, 나사
웅촌면	51.65	4,266	7,427	9 (27)	92	곡천, 검단, 은현, 고연, 대대, 초천, 통천, 석천, 대북
두동면	63.33	2,445	4,212	8 (15)	42	은편, 만화, 구미, 월평, 삼정, 봉계, 천전, 이전
두서면	78.86	1,844	2,930	9 (17)	42	인보, 서하, 구량, 차리, 내와, 복안, 활천, 미호, 전읍
상북면	123.58	4,305	7,842	13 (22)	88	산전, 지내, 향산, 천전, 등억 알프스, 명촌, 길천, 거리, 양등, 궁근정, 소호, 덕현, 이전
삼동면	62.35	1,038	1,690	7 (16)	25	조일, 보은, 금곡, 하잠, 출강, 작동, 둔기

8.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 도시

구 분	외국도시명	체결일자	교류종류
자매결연	전라남도 여수시	2009. 10. 29.	자매결연
	중국 무석시 회시산구	2019. 4. 9.	자매결연
우호협력	중국 래서시	2000. 7. 26.	협정서
	중국 문등시	2001. 12. 14.	협정서
	중국 판진시	2003. 2. 19.	의향서
	중국 심북신구	2003. 3. 21.	의향서
	중국 해림시	2004. 9. 3.	의향서
	일본 대마시	2005. 11. 15.	협정서
	포르투갈 포초코아시	2016. 7. 5.	의향서
	스페인 살라망카시	2016. 11. 2.	의향서
	포르투갈 신트라시	2017. 12. 10.	우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코 트르제비치시	2018. 6. 18.	우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베트남 화빈성	2019. 7. 3.	협정서
	중국 위현	2020. 12. 3.	의향서

9. 언론보도

울진해일방포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002면 중앙

울주군, '방사능재난 대응' 더 빨라진다

전국 최초 '전자매뉴얼·디지털상황판 시스템' 구축 완료... "타 재난에도 적용 계획"

※ 미래 어느 날, 서울원자력에서 방사선이 누출된 직색상황이 발생했다.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방사능재난 위험을 알고 있는 울주군 관계자들은 총무상황실에 모였다. 관계자들은 총무상황실 모니터를 본 '스마트 방사능 방재 지휘통제 시스템'을 통해 상황전파를 단계별 전자매뉴얼에 맞춰 신속한 조치를 내렸다.

울산시 울주군이 전국 최초로 전자매뉴얼·디지털상황판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사능재난 대응에 나선다.

울주군은 10일 군청 비둘기호에서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전자매뉴얼·디지털상황판 시스템' 구축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시 및 각 구·군 관계 공무원과 운영업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시스템 구축 추진결과와 최종결과를 보고를 진행했다.

전자매뉴얼·디지털상황판 시스템은 기존 방사능재난 발생 시 활용하던 글자 위주의 매뉴얼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각화를 통해 업무 매뉴얼의 시간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DB 검색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지원해 방재요원의 업무 처리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스마트 방사능방재 지휘통제시스템과 연동도 가능해 시각화된 재난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기능을 보면 전자매뉴얼은 △방사선비상 단계별, 민방 일부의 역할 스티플자 소속과 업무,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조정절차, 지정대피로, 구호소 관련 정보 △업무 연계업무(주요업무) 체크리스트 등을 표출해 안내한다.

예를 들어 '비상경보반'의 경우 주민 대피 가두방출 총괄은 00과, 지원은 00과, 주민대피 총괄 00과 등을 나타내고 지원인력에 대한 실시간 파악과 현장지원 등이 이뤄지는 식이다.

특히 디지털상황판은 방사능재난 상황을 시각화해 정보를 전달하며, 현장업무 대응 결과와 체크리스트 확인을 통해 주요 조치사항을 공유한다. 재난연장과 대책본부 간의 긴밀한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도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방사능재난 상황에서 보다 빠르게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효율적인 주민보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스템 연장 적용과 고도화를 거쳐 방사능재난뿐만 아니라 타 재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전체 매뉴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울진해일방포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002면 중앙

울주 해양관광 청사진 '태화호 구상' 나왔다

울주군 이순절 군수와 울주군의회의 김명일 의장 등은 지난 12일 국내 최초 전기-LNG 하이브리드 선박인 '울산 태화호'를 견학하고, 선상에서 울주 해양관광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울산시 울주군이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 구축에 나섰다. 울주군은 서생 해양관광단지 조성, 남부권 관광개발 계획, 바다정원과 선라이즈 캠프센터 건립, 울산 태화호를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15일 울주군에 따르면 진해에서 간절곶에 이르는 해안지역에 '서생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관광에 대한 변화와 관광객의 새로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간절곶, 서생해안, 진해해변 등 풍부한 해안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남부권 관광개발 계획은 울산과 부산, 광주, 전남, 경남 등 남부권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의 관광 잠재력을 발굴하고, 광역 연계 개발로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발맞춰 울주군은 해양문화 체험기반을 확대하고, 자연휴양 체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라이즈 캠프센터 건립과 바다정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울산 태화호' 견학을 계기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울산 태화호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 콘텐츠 개발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울산 태화호는 길이 89.1m, 폭 12.8m, 2천700톤에 달하는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형 전기 추진 선박이다. 울산정 보산발전용원이 사업을 주관했으며, 총 사업비 468억원이 투입돼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했다.

지난 12일 이순절 울주군수와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장 및 군의원 등 일행은 견학을 통해 선박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사함을 계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생 해양관광단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울산 태화호를 타고 경주와 포항, 부산 등 인접 지자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관광단지의 확장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울산 태화호와 연계해 간절곶 일출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남부권 관광개발 계획에 이를 접목시켜 관광에 유치가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순절 군수는 "아름다운 해안 경관자원과 미래 기술을 접목해 울주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해양관광산업을 선도해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 울주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온양 보람요양병원 리모델링 군립병원 추진

郡, 내년 하반기 개원 목표

250억 들여 특화된 외래진료
스마트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응급실·건강검진센터 등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등 추가 계획

병원측과 기본적 교감 상태
매입가격 등 협상절차 남아

울산 울주군이 지역 숙원사업인 '울주군립병원'을 기존 병원 매입을 통한 리모델링 방식으로 정하고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본격 실행에 나선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1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성부터 노후까지 전 세대를 케어하는 메디칼센터를 조성하겠다"며 군립병원 설립 계획을 밝혔다.

울주군의 첫 공공병원인 울주군립병원은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 스마트메디칼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립된다.

병원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을 위해 40~80병상 규모로 설립되며, 핵심기능은 응급실 운영과 4~6개과의 특화된 외래진료, 건강검진센터 운영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공공병원 기능 외에도 초고형사회에 대응하는 고령인구를 위한 포괄적 건강서비스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이순걸 울주군수가 1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립병원 설립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현수기자 dskim@ksilbo.co.kr

제공한다.

군은 오는 6월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향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공공산후조리원, 요양원, 신장투석실,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장내식장 등 특화기능과 수익기능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설립 추진방식은 기존 온양 보람요양병원을 리모델링해 내년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보람요양병원 측과는 이와 관련 기본적인 교감만 이뤄졌을 뿐 최종 합의는 되지 않은 상태여서 매입가격 등을 놓고 양측이 협상을 해야 한다.

총 사업비는 약 250억원으로, 병원 건축 비용 평균 700억원 대비 2.8배 비용이 절감되며,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시 받게되는 정부 부담금조사가 면제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 기존 건물 매입(3년)으로 병원 건축(7년) 대비 개원 소요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 지역 의료공백을 빠르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우선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을 개원하고, 이후 환자 수요와 의료진 수를 상황을 고려해 운영이 안정되면 100병상 이상 규모로 확장할 방침이다.

병원 운영방식은 원활한 의료진 확

보와 운영 전문성을 위해 종합병원 위탁운영을 추진한다.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는 위탁병원의 자원을 연계해 보완하며, 2차 진료와 중증환자에 대한 철저한 여충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순걸 군수는 "이번 울주군립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울주 남부권은 의료 취약지에서 보건, 의료, 건강서비스 안전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과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해 군립병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울산신문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013면 문화

울산옹기축제, 제11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3년만에 대면행사 42만명 방문

드론 아트쇼 등 특색 연출 호평

'울산옹기축제'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한 '2023년 제11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열린 '2022 울산옹기축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웰컴 투 옹기마을'을 슬로건으로 개최됐다.

축제 기간 총 42만여 명이 방문해 폭발적인 관심과 성원을 받으며,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 중심의 축제이자 일상과 축제가 연계된 테마파크형 축제로 발전했다.

옹기의 철학적 미학과 친환경적인 특색을 살리고,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온·오프라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특히 개막식 주재공연인 울주판타지 '옹기에 실은 꿈'은 드론아트쇼 및 각종 특수효과를 활용한 연출로 호평을 받았고, 새로운 공연문화와 축



울산 울주군 대표 축제인 '울산옹기축제'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한 '2023년 제11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축제예술·전통 부문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이순걸 울주군수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 대상 수상 후 차정현 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3년 울산옹기축제는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옹기마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순걸 울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일행

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2022울산옹기축제'로 축제예술·전통 부문 대상(Artistic History Impact)을 수상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울산제일일보

2023년 3월 6일 월요일 007면 사회

郡, 남창역 'KTX-이음' 유치 본격 돌입

내년 중앙선 KTX 이음' 완전 개통을 앞두고 울산 북구에 이어 울주군도 정치에 유치에 본격 뛰어들었다.

울주군은 지난 3일 KTX-이음 울주군 유치시 철도망 연계망 마련 등을 위한 '대중교통 연계망 확충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울주군 대중교통 개선과 함께 KTX-이음 정치역 유치를 위한 정책효과 분석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대중교통 솔루션 업체인 '스튜디오갑' 팀과 협의하여 평화연지나어린이 용역사로 참여하며 3억7천만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중고속열차인 KTX-이음은 2021년 중앙선 서울 청량리~경북 안동 구간에 투입된 데 이어 현재 공사 구간인 안동~영천 복선화 사업이 내년 말 완료되면 부산까지 완전히 개통된다.

시속 280km로 기존 KTX(시속 300km)와 맞먹는 속도로 서울~부산 이틀이 2시간 40분 만에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KTX-이음 노선과 접치는 동해선 공역전철 정치역이 위치한 지자체는 주민 이동 편의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정치역 유치전에 나섰다.

울산에서는 앞서 북구가 먼저 정치역

10월까지 정책효과 분석·대중교통 연계망 구축 계획 수립
국토부 "인구·정치역 간 거리·수요 등 종합적 검토 후 선정"



울주군이 지난 3일 청사 비탈기에서 김석경 부군수 주재로 군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용역사,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 대중교통 연계망 확충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북구는 북울산역 역세권과 공공의료원이 들어서는 창명지구 개발, 외곽순환도로 연계를 통한 공역거점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주군은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

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남부권 10만 신도시 개발의 핵심으로 정치역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KTX-이음 남창역 정치역 태화강역 이용객 분산과 울산 도심지 교통 혼잡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번 용역에서 구체적인 정

책효과 분석과 철도 개통에 따른 연계망·환승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용역사는 "2020년 기준 남창역 반경 2km 내 역사 배후 인구는 2만3천77명으로 태화강역의 35% 수준"이라며 "남부권역 전체 인구는 약 12만명으로 남구(31만명)의 30%에 달한다. 울산 도심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KTX 이음 남창역 정치역을 통해 태화강역으로 집중되는 이용객과 승용차량 분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국토부는 KTX-이음 정치역은 인구, 정치역 간 거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철도사업법에 따라 완전 개통 2개월 전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선 간선철도에 투입되는 중고속열차인 만큼 정치역이 많아지면 속도를 낼 수 없어 도입 의미가 없게 된다"면서 "통상적으로 거점역 간 거리는 10~20km이다. 울산, 부산 지역 정치역은 내년 10월 결정 예정이며, 주변 인구와 거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두고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북울산역까지의 거리는 9.7km, 남창역까지는 16.2km에 달한다. 김원경 기자

울산제일일보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002면 문화

언양읍성 유휴부지에 '열린 문화공간'

울주군, 성곽 내 역사 콘셉트 시민 여가공간 조성... 내달 기본구상·타당성 조사 착수

울산시 울주군이 언양읍성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성곽 내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활용방안 찾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언양읍성의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해 새로운 역사 관광코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울주군은 최근 언양읍성 내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다음달 착수, 오는 12월까지 9천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다.

사업 대상지는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95-1번지 언양읍성 내 7만여㎡로,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성곽 내 유휴부지를 도심 속 숲터, 문화와 역사를 콘셉트로 한 시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여건 분석 및 세부적인 관광사업(시설) 청사진을 마련할 방침이다.

언양읍성은 고려 말~조선 초 읍성의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내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자료제공=울주군

축조 방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돼 1966년 사적 제153호로 지정됐다.

고려 공양왕 때 흙으로 쌓았다가 조선 연산군과 광해군 때 돌로 다시 쌓은 것으로, 둘다 일부만 남은 것을 울주군이 10년 넘게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곽은 정사각 형태로 전체 1천 500m(면적 9만578㎡) 중 성벽 600m와 남문 연화루가 복원된 상태다.

이 성벽 내부인 유휴부지에는 현재는 가옥과 논, 밭들로 채워져 있으며, 옛 언양초등학교도 이곳에 자리 하다가 2019년 말 이전 후 철거됐다.

전체 유휴부지 면적은 9만578㎡로, 이 가운데 2만3천여㎡가 성곽과 함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제 활용 공간은 7만여㎡이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자연, 인문, 사회경제 등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을 통해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인 언양읍성 유휴부지 활용 역사문화공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역사 관광시설이나 열린 문화공간 등 적합한 시설을 찾고 추진 여부 가능성을 알아 보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 기간은 내년

부터 2032년까지이며, 유휴부지 20% 이상이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이의 모두 사유지라 문화재청과의 협의, 사유지 보상 기간에 따라 사업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이순걸 울주군수는 민선 8기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언양읍성 문화유산 향유 공간 조성을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공원 조성을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올해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은 총 7억여원을 들여 동쪽 성벽 50m 연결과 인근 등산남산센터 건물 철거를 진행한다. 이 사업 계획은 2012년 1천 500억원 규모로 최초 수립된 이후 2021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재수립됐으며, 2030년까지 관아와 객사 복원과 서역소·향사당 유구 정비, 복원 근거나 위치 등이 확실치 않은 곳은 복토 보존한다. 사유지 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는 300억원(국비 포함)이다.

김원경 기자

전국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 울주군 '최우수' 기관에

울산 울주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3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평가'에서 '최고(SA)등급'을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울주군은 매니페스토본부가 선정한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4대 분야 35개 지표에서 울산지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A(90점 이상)를 받았다.

민선 8기 울주군 공약은 5대 분야 101개 사업이며, 이 중 23개 과제를 이행 완료했다. 나머지 78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울주군은 공약을 지역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약지도와 추진상황을 울주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또 분기별로 공약 이행을 자체 점검하고, 군민이



울주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3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SA)등급'을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가운데 이순걸 군수가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직접 참여하는 공약주민배심원을 운영해 공약 실천 점검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해 준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민선8기 울주군은 군민에게 약속드린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공약을 차근차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형식기자 stevecha@ksilbo.co.kr

郡, 울산울주산악영화제 내실 다지기 돌입

울산시 울주군은 이순걸 군수를 포함한 방문단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현지 시간)까지 이탈리아 트렌토 루온콘실리오 성 바울로에서 열리는 '제71회 이탈리아 트렌토 영화제'에 참석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트렌토 영화제 루아나 비제스티(Luana Bazzoli) 집행위원으로부터 온에 영화제 개막식에 초청받아 이뤄졌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사장인 이순걸 군수를 비롯해 김영철 군의장, 군의원, 관계 공무원 등 울주군 방문단은 지난달 28일 트렌토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뒤 영화제 운영 시설과 지역 축제 현장을 둘러봤다.

또 개막식에 앞서 이탈리아 트렌토 시청을 방문해 엘리자베타 브타렐리 문화 담당 책임자와 영화제 운영 현황, 산악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29일에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초대 산악문화상 수상자 라인홀트 매스너(Reinhold Messner)가 운영 중인 매스너 박물관을 방문해 전시물을 관람했다.

울주군은 울산울주산악영화제에서도 특색있는 산악문화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울주군은 이번 트렌토 영화제 방문을 계기로, 올해 새로운 명칭으로 거듭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내



울주군 방문단이 이탈리아 트렌토 영화제에 참석했다.

울주군 방문단, 제71회 이탈리아 트렌토 영화제 참석 대규모 영화 교류전·전시 콘텐츠 구상 등 협력 모색

실을 다질 계획이다.

영화제 내부적으로는 울산이라는 명칭을 추가하면서 울주에 한정된 공간을 울산으로 확대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산악영화제 특징을 살린 국제영화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침체한 해외 영화제와 교류에도 불교를 띤다.

울주군 방문단은 내년 울주군에서 열리는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주빈국으로 선정된 이탈리아 트렌토와 직접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대규모 영화 교류전과 산악 및 문화, 관광 전반에 대한 전시 콘텐츠를 함께 구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문단은 국제산악영화제 정기총회를 울주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해 트렌토 영화제 기간에 열리는 '2023년 국제산악영화제협회(GAMF) 정기총회'도 찾았다.

방문단은 2025년 영화제 10주년을 맞아 특별행사로 '국제산악영화제 총회'도 울주군에 유치하기 위해 트렌토 영화제에 참석한 세계 산악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군수는 "이탈리아의 대표 산악영화제이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트렌토 영화제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화합과 우호를 다지고,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앞으로 세계적인 산악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늘 기자

울산신문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013면 사람



청송 중국 무석시 회이산구청장 등 울주군 방문 이순걸 울산 울주군수가 김석명 부군수 등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9일 울주군청을 방문한 중국 무석시 회이산구 청송 구청장 및 대표단과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신문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013면 사람



울산시 울주군이 17일 서생면 주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울산 울주군 제공

울주군, 12개 읍·면 주민과의 대화 성료

건의사항 220건 순차 해결 예정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울주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주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이순걸 군수를 중심으로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장을 비롯한 시·군의원,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민들과 적극적

이고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올해 울주군의 주요 역점사업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이 군수는 △남부권 군립병원의 조속한 추진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의 본격화 △제8회 울산울주 산악영화제 개최 △구 연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입 △인구 30만 정주도시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필

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정책 등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직접 설명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울주군은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별 주요 현안부터 주민 불편사항까지 총 220건에 달하는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울주군은 수렴된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와 부서 검토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판단해 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급한 사항은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할 예정이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울주군, 축산농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1천641곳에 실시... 5년 2개월만에 위기경보 '심각'

울산시 울주군이 구제역의 지역 감염 차단에 적극 나섰다.

울주군은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 우려에 따라 지역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확산세를 보이자 19일 청주, 증평 등 주변 9개 시·군의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별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뉘며,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는 2018년 3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발령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역 내 축산농가 1천641곳에서 사육하는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총 6만2천115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했다.

가축별 접종 대상은 △소 농가 1천510호, 2만6천851두 △돼지 농가 15호, 3711천두 △염소 농가 116호, 4천164두 등이다. 생후 2개월 미만의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가축은 접종에서 제외됐다.



울주군이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 우려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 가운데 이순걸 울주군수가 지난 20일 현장을 찾아 구제역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축산농가 방역상태를 점검한 뒤 농민들에게 격려를 전했다.

군은 구제역 백신접종 기간인 지난 19~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양읍 한우협회 사무실에서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을 배부했다. 또 돼지와 염소 사육 농가는 생산자 단체를 통해 백신을 제공했다.

백신은 수령 후 즉시 자기접종이 원칙이며, 긴급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순걸 군수는 지난 20일 직접 현장을 찾아 구제역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축산농가 방역상태를 점검한 뒤 농민들에게 격려를 전했다. 이상길 기자



'울주군 온양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이 24일 울주군 온양읍 대안3길 58 4층에서 열린 가운데 이순걸 울주군수, 김영철 울주군위원장, 시·군 의원, 지역주민과 관계자 등이 개소 축하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울산 울주군 제공

울주 온양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 본격 운영

새울산새마을금고 4층에 등지 장난감 대여·양육 상담 등 제공

울주군이 지역 보육 발전과 양질의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온양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울주군은 이날 온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및 지역 시·군 의원, 지역주민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앞서 울주군은 2016년부터 번서지역에

서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왔으나 남부권 부모들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온양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한 뒤 리모델링공사를 거쳐 이달 센터 준공 및 개소를 마쳤다.

온양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온양읍 새울산새마을금고 4층에 연면적 315㎡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 내에는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실, 관찰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운영은 기존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울산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며 △장난감 대여 △돌·백일상 대어 △교육 및 행사 △놀이지원 프로그램 △양육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만 5세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 및 예비부모이며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격주 수요일은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

민창연기자 changyoni@ulsanpress.net

울산제일일보

2023년 6월 2일 금요일 002면 중형

울주군, '드론 표준도시' 만들기 박차

정보산업진흥원·실증 참여기관 12곳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업무 협약

울산시 울주군이 대한민국 드론 1번지 '드론 표준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주군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연속 지정에 위해 1일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해 주관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구자욱 원장과 참여기관 12곳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해제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다. 울주군은 2021년 특구 1차 지정에 이어 2차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보를 진행했고, 울주군은 지난해 11월 공모 신청 이후 올해 4월 평가위원회를 가졌다. 이달 드론산업협의체 의결·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약은 미래보빌리티인 드론을 활용해 울주군 도시문제 해결과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드론표준도시 울주 구현이 목적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에 맞춰 드론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대상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주관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실증 참여기관 12곳이다.

각 참여기관은 △울산과학기술기



울주군은 1일 청사 은행나무홀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해 주관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구자욱 원장과 참여기관 12곳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UNIST) △SK텔레콤 △나트라 △가이온 △무지개연구소 △에어로러서치 △스카이시스 △울산무인항공교육원 △에이엠피 △프러닝 △블루랜드 △클로비스튜디오 등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드론 관련 4개 분야 16개 사업에 대해 상용화 및 시

범사업으로는 △도심항공교통(DAT) 개발·실증, 통합관제 고도화, 장거리 물품 배송, 간원제 물품 배송) △안전도시(도로 파손 모니터링, 도시경관기척, 불법드론 탐지, 통합방위, 산불·안전감시) △스마트영농(드론조종자격교육, 노지스마트팜) △스마트서비스(산악구조·도시관리·농작물 진단·벌초 예

방·방사능 측정) 등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앞으로 '드론'이 라면 전국에서 울주군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드론 1번지이자 드론 표준도시 울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드론을 활용한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울산신문

2023년 6월 9일 금요일 003면 중형

영남알프스 그란폰도대회 신설 장기 검토

옛 이천분교에 라이딩센터 구축
종합산악관광 허브역할 활용도
울주군 배내골 개발계획보고회

울산시 울주군이 8일 울주군청 비둘기홀에서 이순걸 군수 주재로 김석명 부군수와 부서장, 군의원, 상북면 주민, 산림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내골 종합관광개발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추진된 용역 최종 성과물과 개발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을 맡은 함께인사회적협동조합의 이순훈 책임연구원은 '지역·관광의 상생과 성장'을 비전으로 체류형관광 개발과 계절별관광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구 이천분교 활용방안으로는 산악 및 라이딩 센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배내로와 배내터널 등 다양한 산악도로를 활용한 라이딩 콘텐츠를 마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매력 있는 관광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차후 영남알프스 대표 라이딩 관광지인 브랜딩 이미지를 구축해 장거리 자전거 대회인 '영남알프스 그란폰도 대회'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센터 내에는 종합관광안내소, 카페, 마을공방, 회의실 등을 갖춘 영남알프스

스 종합산악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 센터로 활용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스키네글 둘러길 조성 △옥봉정당대 산책 △죽림길 정비 △안내리 지반 정비 스키네글루 트레킹 행사 등 배내골 종합관광개발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제시됐다.

울주군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제시된 주민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최종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순걸 군수는 "이번 용역을 통해 배내골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구 이천분교의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 관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며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미래 배내골이 매력적인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민청연기자 changyoni@



울산시 울주군이 8일 울주군청 비둘기홀에서 이순걸 군수 주재로 김석명 부군수와 부서장, 군의원, 상북면 주민, 산림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내골 종합관광개발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 울주군 제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해야”

울주군 등 원전소재 5개 시·군
국회서 협의회 열고 공동건의

울산시 울주군을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1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등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건의서를 발표한 뒤 법안을 발의한 이인선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서에서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지난 45년 동안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인근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 운영 과정에서 팔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정부정책의 부재로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과 국민의힘의 이인선·한무경·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계호 의원이 참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또 협의회는 “최근 이어져서 각각 발의된 특별법안 쟁점은 그 합의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하고 있고 지금도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속식자질에 수용관계는 다디르고 있다”며 “개속되는 소모적 정치적 논쟁으로 끝나는 다짐을 놓치게 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위기로 이어지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건의 사항으로 고준위 방사

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원전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해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비 영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전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

역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여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연합기자 chngoni@ulsanpress.net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20년만에 첫 관문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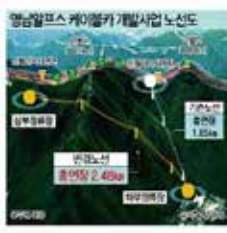
울주군, 환경보호 최우선 노선 조정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변경협의 완료
심의 등 남은 인허가 절차 적극 추진
내년 중반 착공 목표 개발사업 박차

울산 울주군이 추진 중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이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턱을 넘었다. 케이블카 사업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중간지주 줄이고 친환경 공법 적용
이순철 울주군수는 22일 울주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최종 완료됐다”며 “신불산 일대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된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통해 케이블카 노선이 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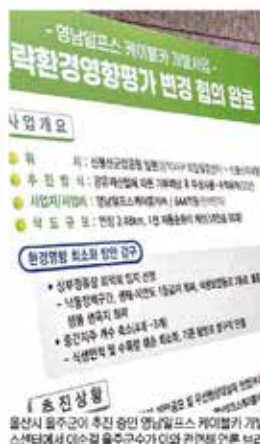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2001년부터 울주군 주요 여객사업으로 추진됐으나 그동안 각종 사유로 중단이 거듭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8기 이순철 울주군수는 위임과 동시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정해 추진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노선도

박차를 가했고,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변경협의가 완료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노선 조정은 과거 기존 노선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사항을 반영해 △낙동강유역구간 △상하-자연도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밀종 위기 야생생물 생육지를 모두 회피해 상부정비장 인지를 정했다.
또한, 환경청의 보완요청에 따라 케이블카 노선 중간지주를 4개에서 3개로 줄여 훼손되는 식생면적과 수목량을 최소화해 환경보전에 노력했다.
이순철 울주군수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친환경 공법 적용을 공약에 나선다. 울주군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큰 불모를 딛고 다시금 발자취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달 말 신불산군립공원계획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7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에 착공해 2025년 12월 케이블카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철 울주군수는 “울주군민 여러분께 잘 지어 주시기, 공무원까지 많은 분들께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적극



적으로 도와주시는 덕분에 사업 추진을 위한 큰 밑거름을 놓아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케이블카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공청회 등 요구 여전히 반발
이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문턱을 넘었지만 환경청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케이블카가 설치돼선 안 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울주군이 어쩔게는 낙동강환경영향평가 관문을 통과하고도 교육청으로 조건부반을 다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부정비장이 해발 1,000m인 신불산보다 한참 낮은 능선으로 내려가 공터에 아슬아슬한 조망권인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승이 기자
2면으로 이어집니다

울산제일일보

2023년 7월 3일 월요일 016면 스포츠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날 30일 삼남읍 교동리 해프미씨름단 숙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기량발전 보탬 되길”… 郡, 해프미씨름단 숙소 개소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날 30일 삼남읍 교동리 해프미씨름단 숙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해프미씨름단 숙소는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1606-4번지 일대 연면적 749.2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선수숙소 8실과 지도자숙소 2실, 식당 및 회의실 등을 갖췄다.

앞서 울주군은 2021년 2월 해프미씨름단 창단 이후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 숙소 건립을 추진했다. 2021년 9월 숙소 사

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지난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지난해 9월 공사에 착공해 지난 5월말 준공했다.

이순걸 군수는 “해프미씨름단을 위한 새로운 숙소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선수단의 기량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해프미씨름단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씨름단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울산제일일보

2023년 7월 4일 화요일 003면 총협

울산시 울주군 이순걸 군수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청렴 울주 100일 도전을 선포했다.

울주군은 3일 군청 알프스홀에서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취임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이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이에 따라 울주군 전직원은 앞으로 100일 동안 부패행위와 행동강령 위반, 음주운전 없는 100일을 다짐했다.

직원들은 이를 위해 △청렴 약속 릴레이 △청렴 캐릭터 디자인 공모 △청렴 슬로건 공모 △공직자 청렴 콘서트 등 청렴 실천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

이 군수는 이날 오후 열린 공약사항 보고회에서 101개 공약사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군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군수는 또 “취임 2년차에는 남부권 10만 정주도시 조성을 위한 의료, 교통 개선대책 등 군민안전과 도시 균형발전,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등 포함

이순걸 군수, 민선8기 출범 1주년 맞아 ‘청렴 100일’ 선포

“도시 균형발전·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포함해 울주관광 재도약에 행정력 집중”



울산시 울주군이 3일 군청 알프스홀에서 7월 정례조화와 함께 민선8기 이순걸 울주군수 취임 1주년 기념식을 열고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청렴 울주 100일’ 도전을 선포했다.

한 울주관광의 재도약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취임 이래 1년 동안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목표로 울주군립병원 설립,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KTX역세권 도심융합특구

선정, 10만 정주권 도시 추진 등 주요 공약사항을 추진해 왔다.

강귀일 기자

울주군, 367억원 규모 기업 신규투자 유치

대원이엔엠 등 3개 기업
신규 투자 희망기업 협약식
49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투자 완료 티엠이씨 등 3곳
투자유치 보조금 21억 전달

울산 울주군에 관내 신규 투자 희망
기업을 유치해 총 367억원 규모의 투
자와 4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지
난 28일 밝혔다.

군은 이날 군청 비둘기호에서 이순
걸 군수와 각 기업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신규 투자 희망기
업 협약식 및 관내 투자 완료 기업 투
자 유치 보조금 전달식을 가졌다.

신규 투자 희망기업 협약식은
(주)대원이엔엠(대표 김대창), (주)탑
아이엔디(대표 정호순), (주)와이비테
크(대표 심관중) 등 3개 기업이 참여
했다.

기계 제조업체인 (주)대원이엔엠은
서생 에너지융합산단에 90억원을 투자
해 15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주)탑아이엔디와 (주)와이비테크



울산 울주군에 관내 신규 투자 희망기업을 유치해 총 367억원 규모의 투자와 4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울주군청 제공

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두 기업
모두 인양 반전일반산단에 154억원,
123억원씩을 각각 투자해 17명씩 신규
고용한다.

협약에 따라 3개 기업은 총 367억원
을 투자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
재 채용을 위해 노력한다. 군은 기업들
에게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이어 군은 (주)티엠이씨(대표 윤한

철), (주)케이씨엔티(대표 김준영),
(주)정산테크(대표 우태경) 등 관내
투자를 완료한 기업 3곳을 대상으로
기업 투자 유치 보조금 전달식을 갖고
보조금 총 21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주)티엠이씨는 서생 에너지융합산
단에 신설한 열교환기 제조 기업으로
101억원을 투자해 25명의 신규 일자리
를 창출했다.

유리섬유 제조 기업인 (주)케이씨엔
티는 116억원을 투자해 서생 에너지융
합산단으로 이전 증설했고 신규 직원
28명을 채용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인 (주)정산
테크는 146억원을 투자해 웅촌 고안공
단에 증설하면서 27명의 신규 일자리
를 창출했다.

백재권기자 jiaekwon@ksilbo.co.kr



KTX 인도교 준공식이 5일 울주군 언양읍 서울주변화센터 공장에서 열렸다. 언양읍과 삼남읍을 연결하는 교량 준공식에 이순걸 울주군수와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장 및 시군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태이프 자르고 있다.

울주군, KTX 삼남~언양 연결 인도교 준공 개통

비비우스 모양 곡선 형태 눈길
형형색색 교량 야간조명까지
보행환경 개선·관광명소 기대

울산시 울주군이 태화강을 횡단해 삼남
읍과 언양읍을 연결하는 KTX 인도교 설
치공사를 마치고 5일 서울주변화센터 공
장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앞서 삼남읍 교동리 일대는 KTX 역세
권 1단계 사업 완료에 따라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고 신흥 주
거지로 변모했다.

그러나 태화강 건너편 기존 언양 시가
지와 신흥 주거지를 연결하는 기반시설
이 부족해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이 필요
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총사업비 90억원
을 들여 2020년부터 실시성계유역에 착수
했고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지난해 풍동
시험 용역을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공사에 착공해 지난달
준공했다.

KTX 인도교는 지역 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량의 디자인 상징성을 우선으
로 건립했다.

곡선 모양의 보행로는 태화강의 물결
을 형상화했고 하늘을 향해 뻗은 주탑은
상승 도약하는 울주군 미래를 표현하는
등 독특하고 특별한 디자인을 갖췄다.

특히 교량상판에는 'AR경관 거대 특
허공방'을 도입해 외관의 경관성을 증시
하는 경관 보도교의 가치를 높였다.

이 특허공법을 사용하면 일반 강관 거
대에 비해 교량상판의 두께를 줄일 수 있
어 강재량을 절약해 경제적이고 외관 디
자인 면에서도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
이 가능하다.

또 주탑 하부에 투광등을 설치하고 주

탑을 향해 이어지는 케이블에도 투광등
을 설치해 빛의 흐름을 통한 주탑의 상
승 이미지를 연출했다.

교량 난간부는 LED 라인 조명을 달아
보행자의 야간 동행 시 안전성을 높였다.
이순걸 군수는 "그동안 KTX 인도교
공사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주신 지역주
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인도교 설치와
함께 앞으로 북항복화단지 도시개발구역
이 개발되면 이 일대가 생동감 넘치는
울주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성장할 것으
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만정연기자 changnyon@

울산매일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001면 1쪽

513억 울주 관광사업 국비 확보 날개달았다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울주 해안·산악 개발사업 2건 포함
군, 내년 예산에 설계비 24억 반영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513억 규모의 '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울주 산악관광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이 반영됐다. 2040년 목표의 중장기 발전계획 '울주다함(울주에 다 있다)'을 추진하고 있는 울주군이 천혜의 자연에 랜드마크가 될 해안도로 전망대와 베이스캠프 등을 조성해 산악·해양관광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133억 투입 간절곶 해안도로에 전망대

울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총사업비 513억원을 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남부권 관광개발계획은 남부권 지역의 연계관광확충과 및 관광경쟁력 확보를 위해 남부권을 남동(울산·부산·경남), 남중(경남·전남), 남서(전남·광주) 3개 권역으로 나눠 향후 10년간 총사업비 6,858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울산·부산·경남·전남·광주 남부권 5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했다.

남동권(울산·부산·경남)은 해양문화 체험 휴양지대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9억원을 들여 △남동권 만(灣)을 활용한 민방세 프로젝트 △바다가 보이는 문화뉴이티 조성 △남동권 생태관광벨트 조성 △더(THE) 마을 프

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주군은 해안도로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과 산악관광의 정보 제공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는 '울주 산악관광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반영됐다.

#380억 울주 산악관광 베이스캠프 조성

'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은 간절곶 해안도로 일원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특색있는 전망대를 건설해 울주 해양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간절곶과 진해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울주군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울주 산악관광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은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배내골 권역'과 '봉어알프스 권역'으로 나누어 '배내골 권역'에는 관광안내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봉어알프스 권역'에는 캐이빙터 사업 추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악 익스플로러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80억원이 투입된다.

울주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당 사업들의 설계비용으로 24억원(국비 12억원, 군비 12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통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전히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도입하여 울주군이 대한민국 남부권의 관광 허브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이 기자 secrets21@usm.co.kr

울산매일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002면 1쪽

울주군, 태풍 침수피해 상습 지구 대대적 정비 나선다

정부 재해예방 공모 2개 사업 선정
서생, 내년부터 5년간 420억 투입
우수관로 신설 등 풍수해 대비 집중
무동, 4년간 210억 들여 위험 방지

집중호우와 태풍에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주민 불편을 겪은 울주군 서생·무동지구에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울주군은 내년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총 315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서생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양 무동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의 정비사업을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해

빈번하게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재해 위험요인을 근본적·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신규 공모사업 대상지구로 서생면 명산리에 위치한 온곡 1구·2구 마을 일대 서생지구를 선정했다. 이곳 일대는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해 재해예방사업 추진이 시급한 재해 취약지로 분류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서생지구는 국비 210억원, 시비와 군비 각각 105억원 등 총 420억원을 투입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5년간 화산천 1.9km, 배수펌프장 및 우수지 설치 2개소, 우수관로 신설 2.2km 등 사업을 실시해 침수피해를 방지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선정된 연양 무동지구는 태화강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 불량으로 침수가 빈번해 발

생해 주민 재산 피해와 생활 안전 위험 등이 잦은 곳이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행정안전부에 연양 읍구수리 무동마을 일대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관련 협의와 현장실사를 거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무동지구는 내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4년간 국비 105억원, 시비와 군비 각각 52억5,000만원 등 총 210억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고지배수로 설치 460m, 배수펌프장 및 우수지 설치 1개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지역주민과 함께 행정안전부 공모심사와 현장실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주민들께서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이 기자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열린 '2023 울주 봉계한우불고기축제' 현장 모습. 사진제공=울주군

봉계한우불고기축제 8만명 다녀가 '후끈'

6년만에 열렸음에도 할인·다양한 부대행사로 매출 10억원 넘기며 인기 모아

울산시 울주군이 '2023 울주 봉계한우불고기축제'에 방문객 8만여명이 다녀갔다고 10일 밝혔다.

봉계한우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국, 봉계의 맛에 반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이 축제는 전국 유일의 한우 불고기 특구를 보유한 울주 대표 먹거리 한우의 맛과 품질을 알리고, 지역 한우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축제 기간에는 양소 한우를 시종일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운영해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울주군 청년창업농 제품 홍보, 한우버거 만들기, 친환경봉계놀이터, 한우가면 색칠하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됐다.

특히 올해 축제는 6년 만에 다시 열렸음에도 큰 호응을 얻으면서 마지막으로 축제가 운영됐던 2017년 방문객 수와 비슷한 8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축제 기간 한우 소비량은 총 100마리

로, 평소 대비 1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매출액은 10억원을 넘어섰다.

봉계한우불고기축제 오명국 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6년만에 축제가 개최된 만큼 명품 양소 한우와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홍보에 힘쓴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순길 울주군수는 "울주 봉계한우불고기축제가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문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봉계한우불고기 특구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 연합·봉계는 인근 영남알프스의 고봉과 기암절壁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축산업이 발달한 곳으로서, 좋기하면서 육질이 부드러운 순수 한우 양소 고기의 전통적인 맛을 보존하고 있어 2006년 국내 유일의 한우불고기특구로 지정됐다.

강기열 기자

산악축제로 진화한 영화제...관람객 40% 넘게 늘어

■제8회 UMFF 폐막

31개국 151편 작품 소개
국가정원까지 영역 확장
산악문화 체험행사 다채
이색적 비박상영 등 호평
여러 행사 한꺼번에 몰려
곳곳서 혼잡상황 빚어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영남알프스를 배경으로 열린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UMFF)가 열흘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0일 개막한 영화제는 울산 울주군 삼척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와 대화강국가정원에 마련된 상영관에서 31개국 151편의 작품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 영화제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로 거듭난만큼 알프스시네마를 비롯한 대화강국가정원으로 장소확장에 더욱 많은 시민이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데막을 넘어 한 열한 축제의 장으로 돌아와 들린 하여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열흘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20일 막을 내렸다. 사진은 20일 열린 폐막식 모습.

경, 파루르 놀이터, 산속 자전거 학교, 움프 산악 가이드, 움프 다도 명상 등 산악문화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금·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이어진 '비박상영'은 영화 마니아에게 호평을 받았다.

올해 산악문화상 수상자인 스티븐 베니블스 김연과 아바노이 아사시, 다와 루티 세트와 등 전설적인 산악인을 만나다 위한 산악인의 발걸음이 이어졌

고, 좋은 영화연출도 게스트와의 만남, 무대인사 등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했다. 덕분에 관람객 수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열흘간 상영관에서는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1만880명이 영화를 즐겼고, 제원 프로그램 참여자 1만2210명, 전시 관람객 1만5000명 등 영화제 기간 총 6만9420명이 영화제를 찾았다.

영화제를 한 한 50대 부부 관람객은 "가을날 산과 가을 거리는 곳에서

열리는 영화제라 더욱 인상 깊은 것 같다"면서 "평소 쉽게 보기 어려운 장르의 영화와 함께 즐길거리가 많아서 좋다"고 말했다.

20일 열린 폐막식은 폐막작 줄리엣 드 마르시아 감독의 '밤의 인도자' 상영과 어부전의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국제장점 대상은 '파라다이스' (감독 알렉산데르 아바무로프)이 수상했고, 작품상은 '릴리17: 클레스타인 클리이빙' (감독 니 로렌-제키

리 바), 감독상은 '스라소니 란' (감독 유하 수온제), 촬영상은 '겨울을 오르는 사발들' (감독 엘레스트리), 심사위원상 특별상 '파산: 에베레스트의 그림자' (감독 난시 스펀)이 받았다.

산악영화 중 관객들이 직접 뽑은 관객상은 '스티븐 베니블스의 펙스트' (감독 데이비드 맥미강)가 선정됐다. 아시아장점 넷플릭스는 '아바노이 아사시: 동방과 삶' (감독 타케이시 히로야케), 청소년심사위원상은 한국 예니에선 '나무의 집' (감독 김해미)이 수상했다.

다만 올해 영화제는 '산악대축제'으로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영남알프스 원동원의 날 등 여러 행사와 함께 열려 관람객과 대회 참가자들이 한 장소에서 쉬쉬하는 등 혼잡스러운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또 인근 상인들은 본산에 열릴 행사가 한바탕 몰려 혼잡도만 높아질뿐 상권 활성화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순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사장은 "앞으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산악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집중적이고 알찬 행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희 기자 sh3700@ulbo.co.kr

경상일보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007면 사료

울산 소 렘피스킨병 예방접종 총력전

축산농 1486가구 소 3만5천두
郡, 10일까지 백신접종 지원
방역대책 상황실 가동하고
공수의 9명 구성 접종반 운영
농가단위 방역에도 힘써

울산 울주군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 렘피스킨병'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백신접종을 비롯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1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소 렘피스킨병 차단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지역 소 사육농가(1486호)에서 키우는 소 3만5천515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앞서 군은 렘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따라 백신접종반 편성 등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했다.

50두 미만의 소규모농가 1294호, 소



울산 울주군이 1일 소 렘피스킨병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백신접종에 나선 가운데 이순걸 울주군수와 관계 직원들이 성동면 작동리 한우농가 백신접종 현장에 방문해 렘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울주군 제공

1만3005두에 대해서는 공수의 9명으로 구성된 접종반을 운영해 백신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 1만3009두를 사육하는 50두 이상 전업농가 102호의 경우, 이날부터 2일까지 이틀동안 백신을 배부한 뒤 농가에서 즉시 자가접종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렘피스킨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지역 축산농가에 질병 발생상황 및 일시 이동금지 명령을 전파했다. 지역 내 가축시장도 별도 조치 시까지 폐쇄(휴장)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 최대 규모의 거점소독시설 및 공동방제단을 운영해 철저한 방역에 나서는 한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렘피스킨병 예방 및 의심축 신고요령, 렘피스킨병 대개 흡혈 해충 방제요령을 안내하는 등 농가 단위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날 성동면 작동리 한우농가 백신접종 현장을 방문해 렘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에 백신접종 요령 및 주의사항을 직접 안내하면서 신속한 접종을 독려했다.

이 군수는 "소 렘피스킨병 차단을 위해서는 신속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므로 원활하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긴급 백신접종을 비롯한 철저한 대응으로 소 렘피스킨병이 울주군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 렘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소에게 전신성 피부병 증상을 유발해 유량 감소, 식욕 부진, 불임 등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질병이다. 지난달 20일 충남 서산시 한 한우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 지역까지 전파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현재 형성은 백신 접종 후 3주 이상이 소요된다. 이 기간 농장 내·외부 출입 통제 등 방역 조치 및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울산경제지사 an@ulsa.co.kr

울산매일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010면 사료

포커스

울주군, 울주배 미국 수출 판촉 팔 건어

군의회·원예농협 등과 홍보단 구성
4일까지 LA 현지 파견 시식 등 진행

울산시 울주군이 울주배 미국 수출을 위한 판촉·홍보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울주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미국 LA 현지에 '울주배 미국 수출 판촉·홍보단'을 파견해 울주배 시식 및 판촉·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출 홍보단은 울주군 농업정책과와 울주군의회,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울산 원예농협 등으로 구성됐다.

홍보단은 현지 시각 11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지역에 위치한 Wholesale Choice Market과 세리토스 지역의 Seafood City Market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울주배 시식 및 판촉행사를 개최했다.

울주배는 높은 당도를 자랑하며 시식행사에서도 참여한 현지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울산시 울주군이 울주배 미국 수출을 위한 판촉·홍보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울주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미국 LA 현지에 '울주배 미국 수출 판촉·홍보단'을 파견해 울주배 시식 및 판촉·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LA지사를 방문한 홍보단은 미국 현지 유통현황과 수출 문제점 대책을 협의했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산 배와의 차별화를 위해 맛과 고품질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 시장조사를 하고, 현지 바이어 및 마트 관계자와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최근 냉해, 태풍으로 인해 배 수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원활한 울주배 수출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해외 판촉·홍보행사를 지원해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힘쓰고 있다. 김상아 기자 lawyer405@iusm.co.kr

울주군 지역 7개사, LA 등서 33건 573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

군, 2023 북미서부 시장개척단 파견
실리콘밸리 신기술 동향 벤치마킹 등
연말까지 中企 제품 홍보관 운영도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지역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수출 상담 33건, 상담금액 573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미국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리콘밸리의 최신 산업 기술 동향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하고자 파견됐다.

개척단에는 지역 수출기업 7개사와 울주군,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지난달 31일 북미 서부 시장진출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난 1일과 3일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에서는 총 33건, 573만 달러 상당의 상담이 진행돼 추후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척단은 실리콘밸리 세계 최대 글로벌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플러그엔플레이'와 AI 기반 C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지역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 상담 33건, 상담금액 573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울주군 제공

RM 솔루션 기업인 '세일즈포스'를 방문해 미래 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혁신기술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울주군은 해외시장 현지 파견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올해 말까지 '울주군 중소기업 제

품 홍보관'을 운영해 온라인 참여기업 5개사를 포함한 총 12개사의 주요 제품을 홍보한다.

더불어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바이어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과 유가 상승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도전하며 성과를 내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을 주시하면서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자 changmin@

울주군, 샤힌프로젝트 건축인허가 돌입

도시건설국장 총괄 TF팀 가동... 컨설팅·실무회의·모니터링 등 적극 행정지원

울산시 울주군이 S-OIL의 샤힌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인허가 TF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울주군은 온산읍 일원에서 추진하는 샤힌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달부터 건축인허가 TF팀을 구성해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S-OIL의 샤힌프로젝트 사업은 올해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사업비 9조 2천580억원이 투입돼 실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샤힌프로젝트는 2018년에 5조원을 들여 완공한 1단계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후속작으로, 대주주인 아랍코의 한국 내 투자증상 사상 최대 규모다.

S-OIL은 샤힌프로젝트를 통해 유가에 좌우되는 정유 사업 비중을 69%로 낮추고, 석유화학 비중은 12%에서 2배 이상 늘어난 2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샤힌 프로젝트의 최신 설비를 통해 정제마진 낮추고 대량 생산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비전 2030'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빈살만 왕세자가 2016년 공식화한 '사우디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계획으로, 석유 산업의 의존도를 낮추

고 민간 경제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S-OIL은 온산읍 일원 90만여㎡ 용지에 연 180만t의 에틸렌, 75만t의 프로필렌 등의 생산을 목표로 온산국가산업단 내에 프로젝트 핵심설비를 건설한다.

현대건설 등 4개사가 EPC설계, 조달, 시공)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 건축물 77동(연면적 16만5천448㎡), 공작물 371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사업 관련 건축인허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건설도시국장 총괄 하에 관련 부서를 포함한 TF팀을 꾸려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선다.

TF팀은 기업체와 월 1회 주기적인 컨

설팅과 실무회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예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건축인허가 관련 사전 협의나 관계 법령 검토 등 행정적인 부분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건의 및 예로사항 등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며 "대규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필 기자

울진신문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003면 중형



울산 울주군 '명선도'가 올해 국내 최고 여행지 10곳을 뽑는 '2023 SRTm 어워드'에 선정되고, 지난해 7월 야간조명 조성 이후 아름다운 볼거리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국내 최고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울주군 명선도, 국내 최고 여행지 10선에

지난해 7월 야간조명 설치 후
밤손님 20만명 돌파 인기몰이

울주군 '명선도'가 지난해 7월 야간조명 조성 이후 아름다운 볼거리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국내 최고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8월 울주군이 따르면 올해 국내 최고 여행지 10곳을 뽑는 '2023 SRTm 어워드'에 울주군 명선도가 선정됐다.

SRT 채널지 SRT매거진은 국내 여행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하는 SRTm 어

워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후보지 39곳에 대한 독자 1만 182명의 추천을 반영한 1차 심사위원 여행 작가, 여행전문기자 등 10인의 전문가 평가를 반영한 2차 심사를 거쳐 울주군을 비롯한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 위치한 명선도는 '대양이 잠든 섬, 명선도'로 불리며 해가 지면 형형색색의 조명과 미디어아

트로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신비의 섬으로 일소문이 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명선도에 야간조명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야간에만 20만 5,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또 야간조명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우수사례로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명선도 벤치마킹을 위

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명선도의 특색 있는 해수욕장이 사계절 찾고 싶은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연말에는 해변산책로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을 설치할 것"이라며 "울주와 진하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hangyon@uljinpress.net

울진신문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007면 사회



울진시 울주군이 8일 군청 이화홀에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울주군, 근로자복지회관 2026년 준공 목표 박차 용역 최종보고회... "복지·문화수준 높이고 노사관계 개선 기대"

울진시 울주군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속도를 낸다.

울주군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내년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실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8일 군청 이화홀에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순걸 군수를 비롯해 울주군의회 의원 및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결과를 듣고,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설 건립 장소는 온산을 역

신리 33번지 일대다. 부지 면적 4천 980㎡ 규모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 연면적 6천988㎡ 규모로 건립된다.

아울러 근로자복지회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순걸 군수는 "근로자복지회관은 우리의 근로자들의 복지와 문화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노사관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의 타당성을 확실하게,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실이 건립될 것 바란다"고 말했다.

강귀일 기자

울주군 “양질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개관식
이순걸 군수·지역민 등 100명 참석
우수기업 발굴·취업매칭 등 기획장

울산 울주군이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창업과 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본격 운영한다.

울주군은 14일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김영철 울주군 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취·창업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울주군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웅촌면 국천동문길 32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부지 2,936㎡로 조성됐다.

센터에서는 지역 창업 저변 확대 및 우수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과 구직자 및 구인 기업의 맞춤형 취업 연계를



울주군은 14일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김영철 울주군 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취·창업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울주군 제공

제공한다.

세부 시설은 지하 1층 이벤트 홀과 1층 공유공간, 카페 및 모유수유실, 2층 교육실, 공유주방, 협업공간, 상담실 등으로 구성됐다. 3층은 일자리 안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사무실, 스튜디오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4층과 5층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및 창업보육실, 회의실, 휴게실로 이뤄졌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다양한 창업과 취업 교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아 기자

간절곳에 세계 최대 규모 정크아트 전시

내달부터 18m 크기 ‘솔라봇’ 등 114점… 가상공간 촬영·VR체험 등도 다채

새해 첫날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울주군 간절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정크아트가 들어선다.

울주군은 서생면 간절곳 일대에 정크아트 작품 총 114점을 설치해 다음달부터 기획전시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크아트(Junk Art)는 환경과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폐품과 쓰레기, 잡동사니를 재 활용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미술이다. 지구기후와 환경문제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에코아트(Eco Art)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기획전시는 365일 ‘해가 머무는 곳’이라는 간절곳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 해맞이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를 맞이하는 장소인 간절곳의 밝은 태양에너지에 친환경을 지향하는 정크아트의 의미를 담았다.

(사)서생면주민협의회 주관으로 전시가 추진되며, (주)한국수력원자력과 서



다음달부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곳에 전시되는 정크아트 작품.

생면 상생협력기금 35의여원이 투입됐다.

전시에서는 세계 최대 크기의 18m 정크아트 작품 ‘솔라봇(Solarbot)’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정크아트 작품 총 114점을 감상할 수 있다.

솔라봇은 태양에너지를 충전하기 위

해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울주 간절곳을 방문한 로봇으로, 미래 간절곳의 모습을 상징하는 전시 대표작품이다.

또한 놀이동산을 연상시키는 회전목마 모형의 조형물을 비롯해 스마트팜을 주제로 서생면 등 울주 특산물을 표현한 작품, 다양한 동물과 캐릭터 조형물

등이 전시된다.

5m 높이의 성 모양으로 구성된 체험존에서는 참여자들이 가상공간에서 전시 캐릭터의 옷이나 갑옷을 장착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거나 VR체험을 즐길 수 있고, 간절곳의 태양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이해를 돕는 e-스테이션 등이 마련됐다.

이순걸 군수는 “이번 기획전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간절곳에 정크아트가 가진 친환경의 의미를 집록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절곳에 해맞이뿐만 아니라 인프라 개발 및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 국내외 관광객이 모두 찾는 명실상부한 해맞이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 서생면에는 새롭게 설치된 간절곳 정크아트 조형물을 비롯해 지난해 8월 세계 최대 규모의 정크아트 문화예술 복합공간인 ‘F&O1’이 개관하는 등 정크아트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강귀일 기자

울산제일일보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007면 사회

郡 “동해선 폐선부지 맨발길 조성해야”

관광자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 옹기마을 연계 ‘옹기 흙’ 활용 제한

울산시 울주군에서 동해선 선로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를 활용해 ‘옹기 흙’을 이용한 맨발길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울주군은 5일 군청 비둘기호에서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폐선부지 활용 관광자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이번 용역은 동해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폐선부지를 활용해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기본구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10월에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주요의견과 지난달 실시한 현장답사에서 나온 조치사항을 반영해 ‘옹기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기본구상안을 제시했다.

용역사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폐선



울산시 울주군은 5일 군청 비둘기호에서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폐선부지 활용 관광자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부지를 활용한 맨발길 조성을 제안했다. ‘옹기마을’과 연계해 옹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만물의 5가지 원소(흙, 바람, 물, 나무, 불)를 상징화하고 전체 구간을 테마별로 5개로 구분하여 관광객이 이색적인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주로 낮에만 운영되는 기존의 맨발길과 다르게 ‘옹기’를 형상화하는 5가지 원소들의 세계관을 조명과 미디어 아트로 표현해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포함했다.

울주군은 이번 용역 최종 결과 보고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폐선부지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외고산 옹기마을은 울주군 은암읍 고산리에 있는 만속마을로 면적 17만4천 580㎡ 가운데 공영지구가 4만9천300㎡이다. 이 마을의 40여가구가 옹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전통문화 체험 마을로 개발됐고 2010년에는 울산세계옹기엑스포가 이 마을에서 열렸다.

이 마을 앞으로 철도 동해남부선이 지나갔으나 동해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돼 마을 앞 철도는 폐선됐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폐선부지를 활용한 맨발길 조성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울주군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강구열 기자

울산매일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010면 사회

포커스

맨발로 걸으며 울주군민 밀착 소통 ‘좋아요’

이순걸 군수, 주민 이색 소통 눈길 화장산 일대 맨발길서 민원 청취

울산 울주군이 최근 전국적인 ‘맨발 걷기’ 열풍에 맞춰 군수와 군민이 맨발로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이색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주군은 지난 9일 언양읍 화장산 일대 맨발길에서 이순걸 군수와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맨발로 걸으며 소통하면 좋은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365 소통군수실 만남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



지난 9일 언양읍 화장산 일대 맨발길에서 이순걸 군수와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맨발로 걸으며 소통하면 좋은걸’ 행사에 동참했다.



울산 울주군이 지난 9일 언양읍 화장산 일대에서 ‘맨발로 걸으며 소통하면 좋은걸’ 맨발 걷기 주민 소통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이순걸 울주군수와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장 및 시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난 6월 ‘청년과의 대화’, 9월 ‘소상공인과 의 대화’에 이어 찾아가는 주민 소통행사로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인기를 끌면서 울주군 곳곳에서도 맨발길과 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순걸 군수는 이날 직접 주민들과 맨발 걷기를 하며 필요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군수는 울주군민의 더 나은 여가 문화를 위해 12개 읍·면 모두 필요한 곳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을 직접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앞서 울주군은 화장산에서 맨발 걷기를 즐기는 주민들이 증가하자 편의 제공을 위해 오영수 문학관 인근에 세족장을 설치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 수렴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인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맨발 걷기 소통행사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군민들께서 원하는 부분을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군민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울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28일 체험형 어린이 전시 공간인 '웅기상상놀이터'를 개관한 가운데 기념식을 진행했다. 울산 울주군 제공

어린이 체험·전시 '웅기상상놀이터' 문 열어

**웅기 제작 과정 AR·모션 게임 등
울주군, 개관식 갖고 본격 운영**

울산 울주군이 28일 동화 속 동물 친구들과 함께 전통 웅기 제작 과정을 손끝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체험형 어린이 전시 공간인 '웅기상상놀이터'를 개관했다.

울주군은 이날 웅기아카데미관 야외 광장에서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웅기상상놀이터는 기존 웅기아카데미관 웅기전시관을 전면 개편한 공간이다.

외고산 웅기 장인들이 오랫동안 전승해 온 '전통 웅기 제작 기술'을 주제로

'이해하기' '진해지기' '표현하기' 등 총 3부로 나눠 운영된다.

1부 '이해하기'에서는 동화책을 모션 애니메이션화한 미디어 콘텐츠 공간을 마련해 아이들이 체험형 전시 주제에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동화 속 세상을 콘셉트로 휴게공간과 서재, 수유실 등을 조성해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2부 '진해지기'에서는 흙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AR 증강현실 모래놀이인 '샌드크래프트' 체험과 나만의 웅기를 만들며 웅기 제작 과정을 배워보는 모션 인식 게임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외고산 웅기 마을의 칸가마를 형상화한 공간에서 웅

기 소성 과정을 체험하는 등 아이들이 웅기가 전해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도 마련된다.

3부 '표현하기'에서는 웅기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기네스 인증 최대 웅기를 형상화한 대형 퍼즐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동화 속 동물 친구들과 웅기 할아리 옷을 입고 상상력을 키우는 포토존이 운영된다.

웅기상상놀이터는 29일부터 웅기아카데미관 1층에서 상시 운영된다. 휴관일(월, 수요일)을 제외하고 초·중·고생 이하의 어린이와 동반자는 누구나 온라인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울산웅기박물관, 웅기아카데미관으로 하면 된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울주군, 난방 취약계층 벌목 장작 기부

울산시 울주군이 23일 난방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공사에서 발생한 벌목 장작 100t 상당을 팔감으로 배부했다.

울산제일일보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007면 사회



울산시 울주군은 24일 군청 비둘기홀에서 울주군 신규 투자 희망기업 협약식 및 투자 완료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울산 울주군

울주군, 875억원 규모 기업 신규투자 유치 주민 200명 일자리 창출... 협약 기업에 행정·보조금 지원

울산시 울주군이 총 875억원 규모의 기업 신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주민 2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 비둘기홀에서 울주군 신규 투자 희망기업 협약식 및 투자 완료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해 올해 신규 투자희망기업 9곳과 투자완료기업 3곳 등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올해 신규 투자희망기업은 △(주)썬테크 △제일스틸(주) △(주)더에스앤씨 △프라임오토(주) △유콘크리에이티브(주) △(주)씨에이랩 △(주)케

미웍스 △(주)에스제이엔지니어링 △(주)세이프 등 9개 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총 875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200여명 채용을 위해 노력한다.

울주군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투자 완료 시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이날 투자완료기업 3곳에 기업투자유치보조금도 전달했다.

투자완료기업은 △해성공업 △(주)더케이에스 △(주)아이지이 등 3곳이며, 보조금 총 17억3천만원을 지급했다.

강귀일 기자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본격화

19억 투입해 초기 창업자 안정적인 정착·맞춤형 일자리 서비스·창업 프로그램 제공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센터는 올해 예산 19억원을 투입해 예비·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고,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및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초기 창업분야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술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회의실 지원, 사업 고도화 자문, 일대일 투자유치와 멘토링 등 단계별로 지원한다.

기존에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시행 중인 '울주군 청년 창업아카데미'와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 사업'은 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안내지원센터의 고유기능을 강화해 구직자 및 착상담,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구인·구직자의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구직자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동행면접, 취업컨설팅, 카카오톡 채널 운영 등을 비롯해 현재 울주군이 시행 중인 지역산업맞춤형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센터의 공유공간을 이용해 창업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건립된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전경.

하고, 공장설립 무료상담창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창업센터 등 센터의 복합 기능을 강화해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센터 내 위치한 카페는 입주기업인 뿐만 아니라 센터 이용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 및 힐링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교육 및 협업을 위한 코워킹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기 위해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달에는 읍면 이장회의에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올해 상반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과 창업가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꿀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생 2막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신중년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귀일 기자

울산신문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003면 중형

울주군, 지자체 혁신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울산시 울주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울산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6년 연속 우수기관을 달성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243개 광역과 기초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평가 항목, 10개 세부지표에 대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울주군은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 군 단위 82개 기관 중 2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정부혁신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끊임없이 울주군민과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역량을 강화해 군민과 함께하는 더 나은 울주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울산신문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007면 사회

'해프미 바로 콜센터' 개소 1주년 울주군-주민 소통 창구 역할 톡톡

울산시 울주군의 민원 해결사로 활약 중인 '해프미 바로 콜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하면서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해 3월 23일 개소한 해프미 바로 콜센터는 군정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ONE-CALL, ONE-STOP' 방식으로 운영된다.

콜센터 운영 이전에는 민원 연결 도중 전화가 끊어지거나 정확한 업무 담당자 안내가 힘들어 불필요한 전화 돌림이 많았다. 울주군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여권 발급 관련 안내 △각종 제증명 발급 안내 △울주군 축제·행사 등 단순 민원을 상담원이 직접 안내한다.

민원인이 담당자 연결을 원할 경우 상담직원이 먼저 담당자 확인 후 직접 민원을 안내하고 전화를 연결해 민원 과정에서의 불편을 대폭 줄였다. 또 1회 이상 민원 상담을 제공한 민원인의 이력은 DB로 구축돼 연속성 있는 민원 처리도 가능하다.

총 7만6450건 상담...응대율 97.4% 달성

콜센터 개소 이후 1년간 상담 건수는 총 7만6,450건으로 집계됐으며 4명의 상담원이 97.4%의 높은 응대율로 하루 평균 317건 이상의 민원 상담을 처리했다.

문의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폐기물 처리 등 안전환경 분야가 2만3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별 건축인허가, 도로보수 등 도시건설 분야(1만6,874건) △지방세, 자동차세 등 행정문화 분야(1만4,592건) △축수산, 농지 등 경제산업 분야(7,025건) 순으로 집계됐다.

울주군이 콜센터에 대한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콜센터 운영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작년 대비 10% 상승해 직원의 민원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개소 1주년을 맞이한 울주군 해프미 바로 콜센터가 울주군민과의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높이고 신속 정확한 민원 해결을 통해 행정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울주군, 3년 연속 '국내 최고 여행지' 선정

**'2023 SRTm 어워드' 대상
야간경관 빼어난 명선도 높은 점수**

울산 울주군이 국내 최고 여행지 10곳을 뽑는 '2023 SRTm 어워드' 대상에 선정되면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울주군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SRTm 어워드 대상' 전달식을 가졌다. SRT 차내지 'SRT매거진'은 국내 여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하는 SRTm 어워드를 개최하고 있다. 2023 SRTm 어워드는 후보지 39곳 중 10곳을 선정했으며, 독자들이 참여한 1차 심사와 여행작가 등 전문가의 2차 심사를 거쳤다.

그중 울주군은 진해해수욕장 인근 신비의 섬 '명선도'가 인기를 끌면서 대상을 받은 것이다. 명선도 일대는 해가 지면 형형색



울주군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SRTm 어워드 대상' 전달식을 가졌다.

색 조명과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야간경관이 펼쳐져 '아바타의 섬'이라고 불린다.

명선도 앞 진해해수욕장은 울산 대표 여름 피서지로, 전국적인 서핑 명소이자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많은 관광객이 울주의 매력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진 기자 zero@iusm.co.kr

울주군, 세계 트레일러닝 메카로 뜬다

**아테첼피언십 첫 개최지로 낙점
ISF 월드시리즈도 국내 유일 유치
장거리·고난이도 코스 갖춰 호평
10월 23일부터 웰컴센터서 진행**

울산시 울주군이 트레일러닝 국제대회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트레일러닝 메카로 비상하고 있다.

울주군은 국제 트레일러닝 협회(IRT A)의 '아시아·태평양 트레일러닝 챔피언십 대회'와 국제 스카이라닝 연맹(IS F)의 'SKY RUNNING 월드시리즈'를 울주군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ITRA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2024 아시아·태평양 트레일러닝 챔피언십 대회'는 개최지 유치에 참여한 5개국의 메이저 대회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 과정을 거쳐 첫 개최지로 울주군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우수한 엘리트 트레일러너들이 출전해 40km 종목과 80km 종목에서 경쟁을 펼치며 15km 코스의 U23(23세 이하) 종목도 진행된다. 권위 있는 행사를 위해 25개국 이상에서 엘리트러너 최대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 스카이라닝 연맹(ISF)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21개 나라에서 개최하는 'SKY RUNNING 월드시리즈'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울주군이 선정됐다.

SKY RUNNING 월드시리즈는 코스 길이 20~30km, 누적상승고도 2,000m 이상에 달리가 가능한 트레일과 날카로운 능선, 눈 덮인 오르막, 가파른 암벽 내리막 등 고난이도의 코스가 있어야 개최할 수 있다.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대회는 2PEAKS(26km) 코스가 조건을 갖춰 대회가 열린다.

각 나라에서 21개 대회가 끝나면 월드시리즈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남성, 여성 선수들이 해당연도의 챔피언으로 등극한다. 올해 챔피언 상금은 2만유로(한화 약 2,900만원)다.

이들 대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7일

까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대에서 열리는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UTNP) 대회'에서 함께 진행된다.

올해 UTNP는 9PEAKS(121km), 7PEAKS(80km), 5PEAKS(40km), 2PEAKS(26km), U23(19km), 1PEAK(10km), 키즈 레이스(가족동반레이스) 등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이 마련돼 3,000명 이상의 러너가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 최장거리인 121km를 달려 40시간 내에 도착지로 들어와야 하는 9PEAKS 코스는 국내 최고난이도를 자랑하며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 대회 최고 난이도인 ITRA 6포인트를 인정받았다.

민창연기자 changyon@

울산신문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007면 사회



지난 28일 서울 북촌 한옥마을 울주군 팝업스토어 누적 방문객이 12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 시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 울주 제공

울주군, 서울 북촌 한옥마을 팝업스토어 큰 인기

간절곶 소망우체통 엽서 쓰기 이벤트
지역 특산물 시식·판매·굿즈 전시도
미국 등 외국인도 호응...1200명 방문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28일부터 서울에서 운영 중인 '북촌에서 숨은 울주 찾기, 울주군 팝업스토어'가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울주군은 지난 28일 기준 서울 북촌 한옥마을 울주군 팝업스토어 누적 방문객이 1,200명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도 이어지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울주군 팝업스토어 1층 '울주 여행 ZONE'에는

울주의 바다, 산, 축제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인다.

특히 간절곶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간절곶 소망우체통'과 엽서를 비치해 서울에서 간절곶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간절곶 소망우체통 엽서 쓰기 이벤트로 작성된 엽서는 내년 1월 1일 발송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팝업스토어 내 포토존으로 구성된 간절곶과 간절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찍, 가장 아름다운 일출 명소 간절곶(The earliest and most beautiful Sun-rise attraction is Gangeolgot in KOREA)'과 '한국인이 사랑하는 금빛 역새를 간직 간절재(Ganwoljae with golden silverweave loved by Korean)'로 집중 홍보해 외국인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4울산웅기 축제' 홍보를 위한 리플렛, 음식굿즈(음기마그넷, 음식소금, 음식접시 등) 전시 및 이벤트도 방문객의 이목을 끌었다.

팝업스토어 2층에는 울주의 맛을 알리는 '울주 F&B ZONE'이 운영된다.

트레비어, 머거본, 옛간 장미를, 울주군 지역 마걸리, 관희복장·유진복장 요거트, 동방하니 별장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 전시와 사식·시음 이벤트가 진행돼 서울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울주의 특별한 맛을 알린다.

울주군 담당자는 "울주 팝업스토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 더 많은 분이 방문해 울주군을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청연기자 changyoni@

울산신문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007면 사회



울산 울주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4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가운데 이순걸 군수가 13일 군청 로비에서 김석명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 울주 제공

울주군,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1조5천억 규모 99개 사업 단계적 순항
40개 완료 54개 추진 중 이행률 58.4%
추진 상황 홈페이지 공개 접근성 확보

울산 울주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4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우수(SA)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민선 8기 울주군수 공약은 대단위 투자사업부터 주민의 일상을 위한 사업까지 총 99개이며 소요예산은 1조5,391억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순항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후 무작위로 선정한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위원단을 통해 공정하게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하고 울주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공약 지도와 공약 추진 상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약사업에 대한 주민 접근성과 공약 이행의 민주성을 확보했다.

특히 공약 수립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공약배심원을 구성해 공약 추진방향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2023년도 공약실천계획 수립평가에서 울산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지난해 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전국에 우수한 공약사업을 확산시킨 바 있다.

현재 총 99개 공약사업 중 입산부 교통비지원, 0세아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뜨미 바로 콜센터 운영, 골화민원센터 설치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40개 사업을 조속히 완료했다.

더불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확충, 취약계층 자립기반 강화, 군민 장제비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울주 군민병원 설립 등 54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중이며 전체 공약 이행률 58.4%를 기록하고 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민을 위한 공약이 약속에 그치지 않고 생활에 스며들어 체감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청연기자 changyoni@

울주군 '해프미', 전국 첫 지자체 캐릭터 버튜버 데뷔

郡 유튜브·인스타그램서 공개
3D 모델링 기술 캐릭터 구현
친숙한 이미지 군정 홍보 효과↑

울산시 울주군대표 캐릭터 '해프미'가 지자체 캐릭터 중 전국 최초로 3D 버추얼 유튜버(Virtual YouTuber, 이하 버튜버)로 데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주군은 공식 유튜브 채널 '울썬TV'와 인스타그램 'Uju_love'에서 버튜버로 변신한 해프미 캐릭터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45억살 유튜브 데뷔

대표 캐릭터인 해프미 IP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인형, 굿즈, 뮤직비디오 제작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 전국 최초로 지자체 캐릭터를 3D

버튜버로 제작하게 됐다. 버튜버 해프미 제작 과정에서 기존의 2D 해프미 캐릭터를 실감 있는 3D 캐릭터로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전문 기술이 동원됐다.

해프미를 의인화하는 단순한 방식 대신 3D 모델링을 통해 2D 해프미 이미지를 3D로 변환해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구현하고 리깅(Rigging) 기술을 활용해 해프미 캐릭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뼈대를 구성했다. 또한 캐릭터가 섬세한 동작을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몸 전체를 센서로 감지하는 폴리다 트래킹을 적용했으며 페이스 익스프레션(Facial Exp

ression) 기술을 이용해 열람으로 사람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뒤 캐릭터가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버튜버 해프미는 대량의 나이를 반영해 45억살 신입 버튜버로 캐릭터를 설정했으며 귀엽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울주군의 다양한 홍보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버튜버 해프미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군정 홍보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울주군 해프미가 지자체 캐릭터 IP를 버리지 않고 꾸준히 활용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청연기자 changyoni@

울주군, 2024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분야 '최우수'

울산시 구·군 총 7개팀 참가 경쟁
스마트 행정 통한 업무역량 강화

울산시 울주군이 울산시가 주최한 '2024년 공간·측량정보 드론활용 경진대회'에서 드론지적재조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2일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열린 드론활용 경진대회는 울산시 구·군 지적 분야 및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총 7개 팀이 참가해 서로 경쟁을 펼쳤다.

참가팀들은 드론을 이용해 항공 영상을 촬영하고 후처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측량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현실 상황에 맞게 경계를 설정한 뒤 결과를 제출했다.

평가는 드론 비행의 안전성과 신속성, 취득한 영상 데이터의 품질, 지적재조사측량 규정에 부합하는 현실경계 설정 및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울산시 울주군이 울산시가 주최한 '2024년 공간·측량정보 드론활용 경진대회'에서 드론지적재조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가운데 이순걸 울주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드론 경진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우수한 드론 활용 능력

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민청연기자 changyoni@

경상일보

2024년 7월 1일 월요일 006면 사회

‘울주군 공공결혼식’ 세달만에 마감 인기

예식 지원 ‘사랑이음 결혼식’
올해 500만원으로 금액 확대
다양한 공공시설 활용 수요↑
예비부부·부모 교육도 지원

지자체가 예식 비용을 지원하는 울산 울주군 ‘사랑이음 결혼식’이 올해 3개월 만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군 지원 공공결혼식인 사랑이음 결혼식은 지난 3월 접수를 시작해 약 3개월 만인 6월 접수가 마감됐다.

올해 3개월 간 부부 3쌍이 벌써 결혼식을 진행했고, 오는 10월에 3쌍이 결혼식을 예약하며 올해 지원 대상인 6쌍 신청이 완료됐다.

지자체가 공공기관, 관광지 등 예식장소를 무료로 대관해주고 예복, 메이크업 등 웨딩 패키지를 지원하는 지자체 공공 결혼식은 울산에서 사실상 군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중구가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작은 결혼식’ 운영에 나섰다가 신청자가 없어 1년 만에 사업이 종료된 반면, 군은 매년 지원 한도인 6~7쌍이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군은 기존 작은 결혼식에서 올해부

터는 사랑이음 결혼식으로 사업명을 바꾸고, 웨딩 패키지 지원 금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군은 도농공 복합지역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은 만큼 매년 사랑이음 결혼식 이용의 절반가량은 국제 커플이다.

합리적이고 의미있는 결혼식 진행으로 올바른 결혼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국내 예비 부부들의 지원도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결혼식 장소도 단순 지자체 청사 내 대회의실뿐만 아니라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등 공공시설 활용 수요가 높다.

군은 사랑이음 결혼식 후 예비 부부

및 부모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최근 결혼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많이 상승한 만큼 군도 이를 반영해 지원 금액을 늘렸는데, 올해는 특히 신청이 빨리 마감됐다”며 “좀 더 다양한 공공시설에서 합리적인 결혼 문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물가 상승으로 결혼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도 공공기관 적극 개방을 통한 예식 공간 제공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올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호수공원 등을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 48곳을 예식 공간으로 추가 개방했다. 정부는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2027년 말까지 전국 200곳 이상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정혜윤기자

울산신문 2024년 7월 1일 월요일 007면 사회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 업무협약식

울산 울주군과 한국조폐공사가 8일 울주군청 은평나무관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청정호 한국조폐공사 사장, 배수현 MINT 사업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 울주군 제공)

영남알프스 완등 기념메달 구매 가능해진다

울주군-한국조폐공사 업무협약 체결 3만명 이후 인증자 중 희망자 신청 가능

울산 울주군과 한국조폐공사가 8일 울주군청 은평나무관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청정호 한국조폐공사 사장, 배수현 MINT 사업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울주군은 2021년부터 한국조폐공사와 계약을 맺고 태년 영남알프스 완등 기념메달 3만개를 제작해 완등 인증자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했다.

완등 인증사업이 적극적으로 활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울주군은 모바일 앱을 제작 운영해 참여 편의성을 높였고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해 재난발 및 현재까지 완등 인증을 가입자 기준 14만 8,000명이 인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수많은 참여자로 인해 기념메달 3만개 분량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팔라지면서 울주군과 한국조폐공사에 선착순에 팔지 못한 완등 참여자의 기념메달 구입 문의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기념메달 판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선착순 경쟁에서 벗어나 참여자 개개인의 일정에 맞춰 신청하고 여유로운 완등 인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통해 한국조폐공사는 울주군의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과 인증번호 3만명 이후 완등자에 대한 기념메달 판매를 담당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스기 기념메달 기획·제작에 대한 상호협력, 스기 완등 인증사업 홍보, 스기 완등 인증사업 대상 기념메달 제작·판매 등이다.

협약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완등 인증자

발급을 완료한 3만명 이후 완등 인증자 중 희망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10월부터 한국조폐공사 인증번호 소지품에서 당해연도 기념메달 구매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메달은 1인 1개에 한해 구매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조폐공사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청정호 한국조폐공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남알프스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며 “다 많은 관광객이 울주를 찾아 대한민국 100대 명산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그동안 행정관 예산으로 완등 완등 인증자 모두에게 기념메달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웠다”며 “이번 협약으로 선착순에 구매받지 못한 기념메달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니 사제할 내내 아름다운 영남알프스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오는 9월부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상해면 알프스온천5길 10)와 내 위치한 ‘영남알프스 완등 완등센터’에서 2024년 완등 인증 기념메달을 지급한다.

올해는 영축산 디자인으로, 메달 앞면은 날갯짓하는 독수리의 모습과 같은 가문의 영축산 행정관, 뒷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봉도사 대웅전에 모습을 새겨넣고 아름답게 디자인했다.

메달 수령 희망자는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앱에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한 뒤 예약일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등 인증 모바일 앱 118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완등 인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완등 인증센터는 월요일과 수요일 휴무에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배수현기자 gbs200@)

울주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개장...장애인 고용 확대·근무 환경 개선

신규 세탁장비 증설 총 186억원 투입
교육실·체력단련실·휴게실 등 갖춰

울산 울주군이 9월 이순절 울주군수와 각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개장 기념식을 가졌다.

울주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세탁장비를 증설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자 이전 개장했다.

총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삼남읍 반구대로 79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94㎡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은 의료 세탁 공장과 교육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식당, 휴게실 등이 조성됐다.

또 기능보강사업으로 30억원을 투입해 근로사업장 세탁장비를 신규 설치했으며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세탁장비도 수리했다.

사무동 1층은 지체장애인협회, 3층에는 농아인



'울주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개장식'이 9월 울산 울주군 삼남읍 반구대로 794에서 열린 가운데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이순절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회장, 변성운 울주장애인근로사업시설장, 시군의원 등 참석 내빈들이 축하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울산지 제공

협회가 입주했으며, 기존 장애인근로사업장 부지에는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울주군은 사업장 전체 처리용량 및 효율을 증대해 근로장애인 고용을 현재 30명에서 향후 5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순절 울주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지역이 장애인의 어려움을 다방면으로 해소하는 복합적인 장애인 복지타운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

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중부권 범서에 중부 장애인복지관을 내년 준공할 계획이며 남부권 운영에도 장애인복지관 설계 공모를 진행해 2025년 준공 예정이다.

김수빈기자 gpfk2202@

울주 8경서 명선도·선바위 추가 10경으로 확대

울산시민 추천·전국민 설문 등 거쳐

울산 울주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경관 10곳을 '울주 10경'으로 선정했다.

울주 10경은 기존 울주 8경에 △진하해수욕장과 명선도 △선바위 등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 2곳을 새롭게 추가해 선정했다.

울주 8경은 △가시산 사계 △신불산 역사명원 △간절곶 일출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대운산 내원암 계곡 △작괘천 △파래소폭포 △외고산 용기마을 등이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4월부터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해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울주 10경 선정에 나섰다. 울주 8경에 새로운 관광명소를 추가 선정하는 방향으로 정비 계획을 세워 추가 대상지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해 후보지를 추천받았다. 이 중 최종 5차례 이상을 추천을 받은 명소인 '진하해수욕장과 명선도' '선바위'가 최종 후보군으로 결정됐다.

이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2차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483명이 참여해 진하해수욕장과 명선도 750표, 선바위 686표, 모두 희망 28표, 무응답 19표 등으로 집계됐다.

울주군은 2곳의 투표수가 큰 차이가 없고, 2개 명소 모두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참여자 의견에 따라 지난 10일 울주군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명소의 대표성, 가치성, 시장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울주 10경을 최종 확정했다.

울주군은 추가로 선정된 울주 2경을 포함해 관광안내판, 관광안내지도, 관광가이드북 등 홍보물을 정비하고, 분야별 홍보 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빈기자 gpfk2202@

울산신문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007면 사회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기공식

울산 울주군이 27일 청량읍 울리 1492-2번지 일대에서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은 이순걸 군수와 최길영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군의원, 각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삽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센터 건립에는 총 사업비 149억5,400만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4,800㎡,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2026년 2월 완공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마켓, 유관기관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민청연기자 chanyon1@



울산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기공식이 27일 청량읍 울리 일대에서 이순걸 군수와 최길영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군의원, 각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울산 울주군 제공

울산제일일보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013면 사람들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 울주군은 27일 범서읍 울주군 가족센터 내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이순걸 군수와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 및 군의원, 취업 유관기관장, 직업교육훈련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울산 울주군은 2일 군청 비둘기호에서 '2024 울주군 기업투자유치보조금 협약식 및 전달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순걸 울주군수가 투자 완료기업 관계자에게 투자유치 보조금 전달 및 신규 투자 희망기업에 관계자들과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울주군, 1100억 규모 기업 투자 유치 250명 일자리 창출

신규 희망 11개 업체와 협약식 투자 완료 3개사에 24억 보조금

울산시 울주군이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총 1,100억원 규모의 신규 기업 투자와 지역주민 250여명의 일자리를 유치했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 비둘기호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해 각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 신규 투자 희망기업 협약식 및 투자 완료기업 투자유치보조

금 전달식을 가졌다.

울에 울주군 신규 투자 희망기업은 △(주)에스케이인더스트리(대표 김동현) △(주)신한에이티(대표 신영철) △(주)대원테크(대표 최형석) △에어치제어엘엠(대표 이호) △린노알미늄(대표 이세영) △루케이아이치에코텍 대표(김광철, 황규옥) △(주)대원테크(대표 박진용) △(주)수성물련(대표 정삼근) △(주)신원정(대표 임종원) △(주)아이앤디(대표 정호준) △(주)오원전기(대표 김효환) 등 11개사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총 1,100억원 상당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250여명 채용을 위해 노력한다.

울주군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투자 완료 시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이날 △한국특장차(주)(대표 이석희) △티에스엠텍(주)(대표 안민우) △(주)아이앤디(대표 정호준) 등 투자 완료기업 3개사에 총 24억2,000만원의 투자유치보조금을 전달했다.

한국특장차(주)는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트레일러를 만드는 기업이다. 250억원을 투자해 16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티에스엠텍은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화학제품을 제조하며, 50억원을 투입해 신규 직원 17명을 채용했다.

아이앤디는 연양 반천리반산단에서 자동차 부품 제작한다.

100억원을 투자해 17명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했다.

민정연기자 changyoni@ulsanpress.net

울주군, 드론으로 음식 배달 시작했다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시행... 작천정 등 거점 3곳서 배달점까지 3~10분만에 배달

"위잉, 하늘에서 짜장면이 내려와요."

울산시 울주군은 5일 삼남읍 교동리에 1711-11번지에 구축된 작천정 배송거점과 별빛아일랜드에서 드론 배송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1711-11번지에 구축된 작천정 배송거점. 이날 직원들은 주문받은 물품이 작천정 거점의 물류센터로 오자 물품이 파손되지 않게 포장한 뒤 드론에 옮겨 실었다.

물품을 실은 드론은 배송 거점에서 2.4km 떨어진 별빛아일랜드까지 10초 만에 '위잉' 소리와 함께 하늘 위로 떠올랐다.

이후 5분이 지나자, 드론은 별빛아일랜드에 설치된 그물망에 상자를 떨어뜨리고 다시 하늘로 사라졌다.

상자에는 꼼꼼히 포장돼 있는 짜장면 2그릇이 담겨 있었다. 박스 안에 짜장면은 흐트러짐 없이 갖 포장에서 나온 듯한 모습 그대로였다.

인근 상인들은 매출 증가 등 여러 이점이 있으며 관공리들의 편의가 향상됐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공리 발전이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작천정 배송 거점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



물품을 싣고 이륙하는 드론 모습. 사진제공=울산 울주군

하는 이한나씨는 "배달이 어려운 곳도 이런 배달이 가능해져 매출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순걸 군수는 "배송된 물품의 포장 상태를 점검하고, 음식을 직접 시식하며 원활한 배송 여부를 확인했다."

작천정 거점에는 드론 2대가 번갈아서 배송에 투입되며, 최대 고도 120m에서 8m/s 속도로 비행해 물품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1회에 왕복 10km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고, 교통 체증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이 가능하다.

이순걸 군수는 "드론 물품 배송으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울주군은 앞으로도 드론의 선두 주자로서 K-드론 배송의 상용화에 앞장서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정책을 펼쳐 나간다고 전했다."

한편 드론 배송서비스는 오는 11월 29일까지 매주 주말 오전 11시부터 일몰 시각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안전사고에 대비해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배송 거점은 △작천정(삼남 교동리 1711-11) △별빛아일랜드(삼북동역앞 프스리 515-10) △천하공영주차장(서생 서생리 150) 등 3곳에 마련되며, 별빛아일랜드를 시작으로 배달점 15개소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거점별로 작천정 149개 품목, 별빛아일랜드 47개 품목, 천하공영주차장 72개 품목 등 총 268개 품목이 포함된다.

배송은 1회에 두개 3kg까지 가능하며 배송료는 3천원이다.

배송되는 물품의 부피는 우체국 택배 상자 4호(410*310*250mm)까지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일반 배송 앱과 동일하다.

'K-드론배송' 앱을 내려받아 배달받을 장소로 선택하고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하면 된다.

앱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배송이 완료되면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배송 시간은 3분에서 10분으로 위치마다 다르다.

울주군은 향후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계획을 보완해 무게 증가와 품목 다양화, 배송 지역 추가 등 드론 배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최주은 기자

울산제일일보

2024년 9월 9일 월요일 007면 사회



울주군 KTX-이음 남창역 정차 범군민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군청 이화홀에서 이순길 울주군수에게 KTX-이음 남창역 정차를 염원하는 울주군민 10만7천788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사진제공=울산 울주군

“KTX-이음 남창역 정차” 울주군민 10만7천명 서명 전달

박순동 위원장 “남부권 신도시 개발 핵심사항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야”

울산시 울주군 KTX-이음 남창역 정차 범군민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군청 이화홀에서 이순길 울주군수에게 KTX-이음 남창역 정차를 염원하는 울주군민 10만7천788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8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운암읍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KTX-이음 남창역정차 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범군민추진위원회로 조직을 확

대해 KTX-이음 남창역 정차를 위한 유치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KTX-이음 남창역 정차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10만7천78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박순동 위원장은 “KTX-이음 남창역 정차는 23만 울주군민의 숙원이자 울주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남부권 신도시 개발의 핵심사항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서명에 동참한 울주군민 10만7천788명의 간절한 마음이 관계기관에 잘 전달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길 군수는 “울주군민의 열원을 담아 KTX-이음 남창역 정차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남창역 정차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서명부에 담긴 울주군민의 유치 열망을 꼭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주은 기자

경상일보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006면 사회

“과즙울주” 울주배 홍보영상 1319만뷰 인기

공개 보름여만의 기록

과즙 내뿜으며 웃음 선사

경기 이천시 벤치마킹도

앞서 360만 조회수로 역대 울산 지자체 홍보 SNS 중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울산 울주군이 이번엔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23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 지역 특산물인 ‘울주배’ 홍보 영상이 SNS에서 조회수 1319만회를 돌파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이 앞서 지난 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울주배 홍보 영상인 ‘과즙이 많으면 일어나는 일’은 이날 기준 조회수 1319만회, 좋아요 23만 7000여 개, 댓글 830개, 공유 5만3000여 회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울주군 공식 SNS에 올린 2024 울산농기축제 홍보 ‘중요한 회의 중에 멈춘 척 하기’가 10일 만에 360만회 조회수를 기록한 것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해당 영상은 현재 630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군은 추석 연휴를 맞아 울주배가 추석 선물로 제격일 뿐 아니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제철 과일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 해풍을 맞고 자란 울주배는 풍부한 과즙에 달콤한 향과 식감이 일품이어서 가을철 최고의 과일로 꼽힌다.

영상에서는 ‘과즙 가득한 추석 선물, 맛있다! 울주배’라는 메시지와 함께 높은 당도와 시원한 식감이 매력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배를 먹으면서 과즙을 내뿜는 재밌는 장면을 연

출해 울주배 특유의 달콤함과 신선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시청자에게 큰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시청자들은 “과즙으로 불도 끄겠다” “워터밤 가서 쓰려고 울주배 3kg 주문했다” “과즙 울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울주배 홍보 영상이 화제 물의를 하면서 경기도 이천시는 울주배 영상을 활용해 지역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 과즙 영상을 게시했다. 이천시는 영상에서 원본 출처를 밝히고 ‘울주군’ 해시태그를 달아 양도시 홍보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배의 매력을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색다른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매력을 더 널리 알



울산 울주군이 지난 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과즙이 많으면 일어나는 일’ 울주배 홍보 영상 모습.

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은기자 hy04030@kailbo.co.kr



울주군, 온산읍 행정복지타운 개청식 울산 울주군 온산읍 행정복지타운 개청식이 26일 온산읍 행정복지타운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의장, 시·군의원 등 참석자들이 제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주군 상북면 거리 산2번지 일원에 추진된 상북(거리·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7년여 만에 준공됐다.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길천일반산업단지와 상북농공단지 종사자를 위한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됐으며, 이번 주택건설사업 최종 사용승인에 따라 입주예정자는 오는 7일부터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이후 조합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를 정리하면 조합원들은 환지 또는 청산금을 징수·교부받고, 아파트 입주자들은 소유권, 대지권을 확보하게 된다.

울산제일일보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006면 사후

울주군, 불법 해루질 근절 '드론 띄운다'

송정항·대송항·평동항 등 서생 어촌 일대 야간 시간대 불시 단속

울산시 울주군은 감시 드론을 활용해 서생 어촌 일대에서 이뤄지는 불법 해루질 근절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6억5천만원, 군비 3억원을 투입해 '드론으로 그린(Green) 울주'를 테마로 'k-드론 배송사업'과 '어촌어장관리'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어촌어장관리 사업은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드론을 활용한 '불법 해루질 단속'과 '어장관리'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울주군의 경우 어촌계가 운영하는 마을어장이 주로 불법 해루질의 대상이 된다.

어촌계 어민들은 수산물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면서 불법 해루질을 감시하지만 현장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 해루질은 보통 자정 이후부터 새벽까지 이뤄지고, 인근에 CCTV가 설치돼 있어도 촬영 방향을 돌린 뒤 해루질을 하기 때문이다.

또 해루질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량을 세워 어디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고, 수산물 채취 후 즉시 치량에 탑승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해안경비대(군부대) 야간 근무자가 바다에서 손전등 빛을 보고 어촌계나 해양경찰에 신고해 단속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에 울주군은 송정항·대송항·평동항 등 마을어장이 위치한 서생 해안



울주군이 감시 드론을 활용해 서생 어촌 일대 불법 해루질 근절에 나선다. 사진은 감시 드론 모습. 사진제공=울산 울주군

일대에 특수 드론 1기를 투입해 불법 해루질을 단속한다.

이 드론은 야간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 경고방송을 위한 스피커, 현장에 조명을 비추는 서치라이트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드론 단속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동안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된다. 단속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은 울주군 서버로 자동 저장된다.

최주은 기자

울산제일일보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007면 사후



울산시 울주군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태국과 베트남에 울주군 하반기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천74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제공=울산 울주군

郡해외시장개척단, 1천74만달러 수출상담 성과

소비재·소부장 관련 기업 15개사 태국·베트남 파견... 현지 바이어 발굴·상담장 임차료 등 지원

울산시 울주군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태국과 베트남에 울주군 하반기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천74만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동남아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태국 방콕과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했다. 울주군 지역 소비재·소부장 관련 중소기업 15개

사가 참가했으며,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통역 △상담장 임차료 △편도항공료 등이 지원됐다.

해외시장개척단은 현지 수출상담회에서 총 96건, 1천74만달러(USD)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울주군은 바이어와의 만남이 직접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파견으로 현

지 경제와 산업을 이해하고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입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24일부터 나흘간 개최

외국인 등 총 2519명 참가
2개 국제대회도 함께 열려
푸드트럭·체험존 등 '풍성'

울산 울주군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해발 1,000m 고지가 넘는 아름다운 산으로 이뤄진 영남알프스에서 전 세계 트레일러가 함께하는 '2024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UTNP) 대회'를 개최한다.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는 국제트레일러 협회(ITRA·International Trail Running Association)로부터 6포인트 인증을 받은 최고 난이도의 대회로, 국내 최장거리 121km 코스(9PEAKS)로 유명하다. 대회를 완주하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TOR 300 대회의 참가 자격을 얻게 된다.

이번 대회는 오는 24일 오후 6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국제트레일러 협회의 '제1회 ITRA 아시아·태평양 트레일러링 챔피언십 대회' △국제 스카이라닝 연맹(ISF)의 'SKY RUNNING 월드 시리즈' 등 국제대회와 함께 세계적인 규모로 치러진다.

지난달 30일까지 선수 모집 결과, 총 2,519명이 신청하면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전 세계 38개국에서 외국인 선수 388명이 등록해 국제대회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울주군은 올해 처음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트레일러링 챔피언십 대회'의 첫 개최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 대회에는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을 대표하는 엘리트러너 212명이 참여해 Short

Trail(41km)와 LongTrail(70km) 종목에서 경쟁하며, 23세 이하 선수들을 위한 U23(14km) 코스도 마련된다.

또한 울주군은 국제 스카이라닝 연맹(ISF)이 주최하는 'SKY RUNNING 월드 시리즈'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최한다. 전 세계 21개 대회만 열리는 이 시리즈는 고난이도의 코스가 필요하며,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대회 2PEAKS(26km) 코스에서 진행된다.

올해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대회는 코오롱 스포츠를 메인 협찬사로 선정해 선수들의 대회 참가 기념품 중 일부는

코오롱 스포츠 물품으로 지원하고, 대회 홍보활동을 펼친다. 대회장에는 코오롱 스포츠를 비롯한 17개의 아웃도어 브랜드 홍보부스가 마련된다.

아울러 대회 기간 엑스포존, 푸드트럭존, 체험존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제공돼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한다.

대회 시상식은 오는 26일 열리며, 27일 키즈레이스를 끝으로 대회의 막을 내린다.

울주군 관계자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대회로 거듭나는 '2024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



“무료 독감 예방접종 하세요” 울주군민이라면 누구나 OK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전 군민까지 확대했다.

24일 울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비 무료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던 14~64세 군민까지 올해부터 대상자에 포함해 지난 14일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했다.

대상은 모두 15만5,000여명으로 군비 17억1,100여만원이 투입된다.

그동안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따라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만 무료 접종을 실시해오다 지난해부터 군 자체 예산 8억2,000여만원을 들여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 연령대와 학령기 청소년까지 대상(7만4,370여명)을 확대했다.

군은 전 울주군민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집단 면역력 확보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군민 의료비 지출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 군민 무료접종 소식에 SNS에는 “울주군민 좋겠다”, “울주군은 다양한 의료 혜택이 많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오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된 군민 A씨는 “처음 무료접종 대상으로 포함돼 미리 주사를 맞았다. 행정에서 군민 건강을 챙겨줘 든든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50대부터 대상포진 유행률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발병할 경우 중증도와 후유증이 높아지는 연구 결과 등에 따라 14년부터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자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순환 군수는 “군민 건강권 강화와 질병 예방을 위해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했다”며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접종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왼쪽부터〉울산시 울주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울주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한 군민들이 줄을 서 있다. 같은 날 울주보건소에서 이순환 울주군수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 최지원 기자 cjlw@usm.co.kr

군, 울산 지자체 첫 전면 무상 접종

국가 접종 지원 제외 14~64세 포함

내년 대상포진 무료접종 50세 1추진

“집단 면역 형성 건강한 겨울나기

군민 건강권 강화·질병 예방 앞장”

울산신문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007면 사회

울주배 미국서 통했다...150만불 규모 수출 계약

郡, LA 등 현지 판촉·홍보 활동 성과
바이어 3곳 매년 400t 이상 공급 협약
적극 마케팅으로 해외에 신규시장 개척

울산 울주군이 미국 수입 바이어 3곳에 해마다 울주배 400t 이상을 공급하는 150만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해 29일부터 8월까지 미국 LA와 하와이에 '울산 울주배 미국 수출 판촉·홍보단'을 파견해 울주배 시식 및 홍보·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울주배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 판촉 홍보단을 파견해 수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현지 여건을 파악해 수출시장 판로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수출 홍보단은 이순걸 군수를 비롯해 울산원에 농업, 지역농협,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본부, 수출농가 등이 참여한 '울산 울주배 미국 수출 판촉·홍보단'을 파견해 울주배 시식 및 홍보·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제공

홍보단은 LA 카운티 뷰에나 파크 지역의 H-mart과 중국계 마트인 SEAFOOD마켓, 하와이 돈키



Ulsan Uju pear agreement to expand exports to the U.S. and promotion
울산 울주배 미국 수출 확대 협약 및 판촉행사
기간: 2024. 10. 29. ~ 11. 6. 주관: 울주군, 울산원에농협

울산 울주군이 지난해 29일부터 8월까지 미국 LA와 하와이에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해 울산원에농협, 지역농협,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본부, 수출농가 등이 참여한 '울산 울주배 미국 수출 판촉·홍보단'을 파견해 울주배 시식 및 홍보·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제공

호테 매장 등에서 판촉 행사를 열었다.

또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를 방

문해 미국 현지 유통현황과 중국산 배의 미국 시장

점유율 등대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해 협의하고, 울

주배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바이어, 마트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출 홍보단은 울주배 판촉 활동 시작과 동시에 수입업체로부터 현장 물량 발주를 받아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8배(120t, 5억3,000만원) 수출 선적 주문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또 올해부터 하와이에 울주배 15을 신규 수출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여한 수입 바이어 3곳에 매년 400t 이상의 울주배, 150만불 상당의 수출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울주배 브랜드 포장재 개선과 소포장 확대 등 개선방안과 중국산 배와 차별화 추구, 판촉활동 강화 등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울주배 해외 수출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울주배를 세계에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청연기자 changyong@

울산제일일보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013면 사람들



울주 음식문화축제 성료 지난 9일 울산시 울주군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시지회 울주군지부가 주최·주관하는 '2024 울주 음식문화축제'가 열린 가운데 이순걸 울주군수와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 및 시군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울주키움 서포터즈 발대식 울산시 울주군이 14일 군청 문수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1기 울주키움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순걸 군수를 비롯해 최길영 울주군의회 이장 및 군의원, 협약기관장, 서포터즈 단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원더풀 울주' 성료

1만7000여건 행정서비스 제공

울산 울주군이 생활 속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원더풀 울주 소통 행정서비스의 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울주군 12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 주민과 소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에는 지난 5월 범서읍을 시작으로 6월까지 4개 읍에서 행사를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9월 온양읍부터 이날 삼동면까지 8개 읍면에서 행사가



울산 울주군이 지난 22일 삼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원더풀 울주 소통 행정서비스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이순걸 군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뤄졌다.

주민 1만55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한 가운데 행정 서비스 1만7000여 건을 제공해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천연비누, 티로 체험, 어린이 체험 등 생활 체험부터 군정 홍보, 건강 관

리, 지역 농산물 판매 등을 한자리에서 제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화분 분갈이 2682명 △갈갈이 1377명 △안경 수리 세척 469명 △옷 수선 281명 △자전거 수리 248명 △도마 수선 241명 순으로

인기가 많았다.

이순걸 군수는 각 읍면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민 건의 사항을 접수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도 마련했다. [정혜윤기자 hy00000ksilbo.co.kr](mailto:hy00000ksilbo.co.kr)

정산일보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013면 스포츠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전국에 위상 증명

2024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남자일반부 최강단전 우승
울시즌 세번째 단체전 정상
김무호 한라장사로 겹경사



씨름 명문 울산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이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최강단전 우승을 차지하며 씨름도시 울산과 울주군의 위상을 증명했다.

해뜨미씨름단(감독 이대진)은 지난 3월 2024 민속씨름 평창오대산천하장사 씨름대회와 4월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문경장사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트로피를 올렸던 이어 이번 시즌 세 번째 단체전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해뜨미 씨름단은 지난달 29일 전남 영암군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울시즌 마지막 대회인 '위더스제약 2024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남자일반부 최강단전 결승전에서 다관왕 챔피언 영암군민속씨름단(전남)을 4대3으로 꺾으며 우승했다.

사작부터 이승원, 노병수가 연달아 2판을 가져오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어진 3번째 판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신역권으로 올라온 차면수에게 이효찬이 한판을 내렸으나, 김무호가 밀어치기로 한판을 가지고 오면서 3대

1로 다시 치고 나갔다.

이후 나온 김병호, 김덕열이 내리 두 판을 내주며 3대3으로, 마지막 7번째 판까지 가는 접전이 이어졌다.

마지막 선수로 나선 정종진이 조운호를 상대로 안다리차와 잡채기를 성공한 끝에 해뜨미 씨름단은 남자일반부 최강단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준결승에서 해뜨미 씨름단은 총력 증봉군을 상대로 4대3으로 접전 끝에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날 울주군청 소속 김무호는 생애 6번째 한라장사(105kg 이하)에 등극했다. 김무호는 박민교(용인시)에게 밀어치기를 허용하며 첫 판을 내렸지만, 밀배지기와 밀어치기를 사용하며 손식간에 두 판을 가져왔다. 네 번째 판은 박민교가 오글당기로 2대2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진 마지막 다섯 번째 판에서 김무호가 밀걸이를 통해 박민교를 쓰러트리며 결국 6번째 한라장사에 등극했

다. 지난달 30일 열린 금강장사 경기에 출전한 노병수는 3위에 그쳤다.

대회 마지막 날인 1일 천하장사 결승전에서 나선 김지훈은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를 만나 0대3으로 패하며 2위로 마무리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해뜨미씨름단은 짧은 겨울 휴식기에 돌입한 뒤 내년 1월에 열린 삼남장사씨름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오성민기자 sm5@silbo.co.kr

울산제일일보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007면 사회

울주군,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지역 첫 등·초본 등 민원 문서 45종…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법원 세입으로 제외

울산시 울주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내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8일 울주군에 따르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증명은 총 122종이다. 이 중 76종은 무료 발급되며, 46종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울주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울주군민이 자주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민원 증명 45종을 무료로 발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으며, 내년부터 지역내 무인민원발급기로 제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단,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법원 세입으로 수수료가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



울산시 울주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관내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하는 가운데 이순걸 군수가 군청 민원실 무인발급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 울주군

소로 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현재 울주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모두 3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민형 기자

울주군, 지역 첫 고향사랑기부금 3억1000만원 달성

목표액 대비 140%·감사인사 전해

울산시 울주군이 울산 최초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3억1,000만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김석명 부군수 등 간부 공무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3억1,000만원 달성을 기념해 기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울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이날까지 총 2,400명이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참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모금액은 3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모금액 2억6,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늘어 목표액(2억2,000만원) 대비 140%를 달성했다.

모금액은 고향사랑 기금으로 적립된다. 기부내역을 보면 10만원 이하 기부자는 2,350명으로 전체 98%를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35명으로 지난해에는 45명 대비 다소 줄었다.

기부금액은 10만원 이하가 2억3,200만원으로 74%였다. 100만원 이상 기부금은 7,800만원으로 25%를 기록했다.

울주군은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답례



울주군이 울산 최초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3억1,000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16일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김석명 부군수 등 간부 공무원이 함께 기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품으로 36개 품목을 준비했다.

기부자가 선호하는 한우, 황우살, 참기름, 복순도가, 울산보배, 배짱, 김치, 별짬, 낫또, 요거트 등이 마련돼 기부금의 30% 내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울주군은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 기부자와 군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금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기부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더욱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순걸 군수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시는 울주군 응원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청연기자 changyoni@ulsanpress.net

울주군, 굴화 도시계획도로 11년만에 추진

수자원공사 국유재산사용 협약
내년 1월 지반조사 용역 착수

울산시 울주군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범서 굴화 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고속도로 진입로와 마트 이용객, 남구 무거동 방면에서 서울주 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 등이 뒤섞여 극심한 정체를 겪던 곳으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이후 꼬박 11년 만의 사업 추진이다.

울주군은 도로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 해당 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으나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수자원공사 소유의 수도용지에 해당해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공업용수관로가 매설된 수도용지에 공사 시 안전사고 발생 및 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양측간 협의회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4일 울주군은 수자원공사와 협의안을 도출



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울주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는 이날 군청 비둘로홀에서 이순걸 군수와 황선민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서 굴화 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국유재산(수도용지)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내년 1월 지반조사 및 기술사 자문 용역에 착수하고, 3월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진행하는 등 도로 개설에 박차를 가한다. 민청연기자 changyoni@

경상일보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002면 중첩

언양 반송~삼동 상작 도로 개통 郡, 460억원 들여 5년만에 완공

울산 울주군 서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언양 반송~삼동 상작 간 도로가 개통됐다.

군은 지난 27일 삼동면 둔기리 1038 일대에서 도로 개통식을 열었다. 해당 도로는 총 460여억원을 투입, 지난 2020년 1월 착공해 5년 만에 완공됐다.

군은 구릉지와 산 능선을 통과하는 해당 도로 공사 현장 지질 내에 층리·절리·파쇄대 등이 산재해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환경 영향으로 대절토 사면(최대 높이 약 35~38m)에서 2차례 인장 균열·붕괴, 일관 절토사면(최대 높이 약 15~25m)에서 3차례 이상 붕괴가 발생하는 등 공정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군은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공공 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 활용했다.

대절토사면 붕괴 부위 보강 과정 중 발생한 임목 부산물을 겨울철 취약 계



지난 27일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에서 열린 울주군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 개통식에서 이순걸 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위원장, 주민 대표 등이 준공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층에 정작으로 지원한 것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개통된 언양 반송~삼동 상작 간 도로는 지난 2020년 3월 울산시에서 개통한 울리~삼동 간 연결 도로와 이어진다.

기존 도로 대비 이동 거리가 2.8km 줄어 이동 시간이 5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군은 해당 도로와 연계해 지난 해 7월부터 '언양 반송~범서 천상 간 도로 개설 공사'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향후 공사가 이뤄지면 신북교차로를 통하는 국도 24호선 교통 혼잡 해소 기대된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울산제일일보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007면 사회



울산시 울주군이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 주소정보업무 유공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가운데 이순걸 군수가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 울주군

연말 접경사 맞은 울주군 “행정혁신 이어가겠다”

의료급여·기초연금사업 우수 평가… 주소정보업무 유공 행안부장관 표창도

울산시 울주군이 다양한 기관에서 2024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30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와 '2024년 기초연금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평가의 경우 울주군은 울주군은 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장기 입원자 대상 찾아가는 사례관리,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 및 다빈도 이용자 1천115명을 대상으로 울주군 권역별 의료급여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읍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의료비용 감소와 올바른 의료급여 수급 문화를 정착시켜 호평을 받았다.

특히 기초연금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군은 각 평가 항목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밖에도 울주군은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 주소정보업무 유공기관'에 선정됐다.

울주군은 이번 유공기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울주군은 지역 내 주소정보시설을 정비하고 고도화해 군민의 위치 찾기 불

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매년 전수 조사를 실시해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신규 도로명판과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해 주소 활용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군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은 군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에 기여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행정혁신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

2025 군정백서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https://www.ulju.ulsan.kr>

기 획 울주군 기획예산실 052)204-0111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울주군 기획예산실에 있습니다.

비매품

